

WEBVTT

00:00:10.223 --> 00:00:11.542

안녕하세요? 여러분.

00:00:11.642 --> 00:00:14.038

여러분과 함께 하는
스마트 상근 쌤입니다.

00:00:14.138 --> 00:00:16.695

우리 저번 시간에는 확장예
대해서 배웠고요.

00:00:16.795 --> 00:00:20.579

두 번째는 진로에 대해서
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.

00:00:20.679 --> 00:00:26.604

세 번째 시간에는 학종, 특히
학생부에서 가장 베이스로 깔리는

00:00:26.704 --> 00:00:29.169

교과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.

00:00:29.269 --> 00:00:33.072

학종 시대에도 중요한
교과라는 타이틀로

00:00:33.172 --> 00:00:35.702

제가 3강 제목을 삼아봤는데요.

00:00:35.802 --> 00:00:38.047

제가 첫 시간에도
이야기를 했습니다.

00:00:38.147 --> 00:00:44.746

학종에서 교과의 비중은 결코
적지 않다고 했습니다.

00:00:44.846 --> 00:00:50.508

오히려 우리나라의 학생부 종합
전형은 교과 중심 전형이에요.

00:00:50.608 --> 00:00:54.078

교과는 성적만
해당되는 거는 아닙니다.

00:00:54.178 --> 00:00:58.509

학생의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모든
것들이 교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.

00:00:58.609 --> 00:01:01.139

과연 이러한 교과를
어떻게 대비를 하고

00:01:01.239 --> 00:01:04.803

어떤 식으로 교과에 대해서
하나하나 학생부에

00:01:04.903 --> 00:01:09.439

내용을 집어넣어야 될지 알아보는
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1:09.539 --> 00:01:10.930
확중입니다.

00:01:11.030 --> 00:01:14.309
확중은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
학생을 평가하게 돼요.

00:01:14.409 --> 00:01:17.952
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베이스라고
할 수 있는 학생부입니다.

00:01:18.052 --> 00:01:23.596
두 번째는 학생이 학생부에 대해서
좀 더 보조적인 설명을 해주는

00:01:23.696 --> 00:01:25.540
자기 소개서가 되겠고요.

00:01:25.640 --> 00:01:27.452
그리고 선생님이 학생에 대해서,

00:01:27.552 --> 00:01:32.370
학생부라든가 자소서에서 드러나있지
않은 면을 알려주는 추천서.

00:01:32.470 --> 00:01:36.343
그리고 요즘 비중이 굉장히
높아지고 있는 면접.

00:01:36.443 --> 00:01:41.557
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학생에
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게 됩니다.

00:01:41.657 --> 00:01:45.372
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
역시 마찬가지로

00:01:45.472 --> 00:01:49.212
학생부 종합 전형의 가장
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

00:01:49.312 --> 00:01:51.336
학생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01:51.436 --> 00:01:53.265
학생부는 굉장히 많은
내용이 들어가요.

00:01:53.365 --> 00:01:57.527
학교가 여러분에 대해서
알려주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.

00:01:57.627 --> 00:02:01.244
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결과
위주의 서술이 되는데요.

00:02:01.344 --> 00:02:06.077
여기에는 학생부 평가에 있어서 가장

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,

00:02:06.177 --> 00:02:08.462
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

00:02:08.562 --> 00:02:14.658
대학교는 이러한 내용들 중에서
지금 보고 계시는 여섯 가지.

00:02:14.758 --> 00:02:16.510
물론 대학에 따라서
다르기도 합니다.

00:02:16.610 --> 00:02:19.488
이런 기본적인 여섯
가지의 요소를 가지고

00:02:19.588 --> 00:02:22.150
학생에 대해서 점수를 매깁니다.

00:02:22.250 --> 00:02:24.985
즉 학종의 평가 요소라고
할 수 있는데요.

00:02:25.085 --> 00:02:29.591
학종은 학생부가 될 수도 있고
자소서라든가 면접 내에서도

00:02:29.691 --> 00:02:32.485
이러한 항목을 가지고
설명을 할 겁니다.

00:02:32.585 --> 00:02:36.977
이 항목에 대해서는 세세하게
설명은 하지 않을 거예요.

00:02:37.077 --> 00:02:41.580
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,
기본적인 학업 역량은 될까요?

00:02:41.680 --> 00:02:43.583
학업, 배우는 거죠.

00:02:43.683 --> 00:02:45.539
역량은 능력입니다.

00:02:45.639 --> 00:02:51.103
즉 이 학생이 대학교에 와서
대학교가 제공해주는 수업을

00:02:51.203 --> 00:02:55.475
따라올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게
바로 학업 역량이에요.

00:02:55.575 --> 00:02:58.201
전공 적합성입니다, 말 그대로죠.

00:02:58.301 --> 00:03:04.402
이 학생이 학과에 정말로 적합한
특성을 가지고 있는지.

00:03:04.502 --> 00:03:08.968
즉 이 학생이 지원 학과에 얼마나 어울리는 학생인가를 알아보는 겁니다.

00:03:09.068 --> 00:03:12.383
발전 가능성, 우리가 앞에서 다뤄봤는데요.

00:03:12.483 --> 00:03:15.847
이 학생이 대학교에 왔을 때 입학 시점보다

00:03:15.947 --> 00:03:20.198
졸업 시점의 학생의 능력이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.

00:03:20.298 --> 00:03:24.228
그다음에 자기 주도성, 남이 시켜서 하는 수동적인 학생이 아니라

00:03:24.328 --> 00:03:29.651
21세기 인재에 맞는 능동적, 주도적 능력이 있는 학생인지를 봅니다.

00:03:29.751 --> 00:03:35.006
경험 다양성, 어떤 스펙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

00:03:35.106 --> 00:03:38.994
한 군데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해왔느냐.

00:03:39.094 --> 00:03:42.238
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

00:03:42.338 --> 00:03:45.877
남은 얼마만큼 배려해주는지에 대한 인성.

00:03:45.977 --> 00:03:49.220
그리고 그 외에도 창의성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가지고

00:03:49.320 --> 00:03:50.882
학생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.

00:03:50.982 --> 00:03:54.449
그런데 여러분이 대학교 입장이라면,

00:03:54.549 --> 00:03:58.149
이렇게 제시된 평가 요소 중에서

00:03:58.249 --> 00:04:01.516
가장 중요한 거를 뭐로 생각할 것 같습니까?

00:04:01.616 --> 00:04:04.720
바로 이 학생이 대학교에 왔을 때

00:04:04.820 --> 00:04:10.175

과연 이 학생이 대학에서 제공해주는
수업을 따라올 수 있느냐.

00:04:10.275 --> 00:04:13.171

이게 가장 중요한
항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.

00:04:13.271 --> 00:04:17.834

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전공
적합성을 높게 보는 대학도 있어요.

00:04:17.934 --> 00:04:21.638

하지만 상위권 대학으로
갈수록 학업 역량을

00:04:21.738 --> 00:04:24.528

첫 번째 평가 요소로 잡습니다.

00:04:24.628 --> 00:04:27.005

학업 역량이 뭐냐?

00:04:27.105 --> 00:04:29.068

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00:04:29.168 --> 00:04:32.075

교과 성적이 될 수도 있고
교과세특이 될 수도 있고

00:04:32.175 --> 00:04:36.714

수상 목록이 될 수도 있고 비교과의
학습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.

00:04:36.814 --> 00:04:41.116

하지만 개인적으로는
학업 역량 중에서

00:04:41.216 --> 00:04:46.170

교과를 핵심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.

00:04:46.270 --> 00:04:49.624

물론 학업 역량과 교과는
일치하지는 않아요.

00:04:49.724 --> 00:04:51.552

정확하게 비례 관계는 아닙니다.

00:04:51.652 --> 00:04:54.493

하지만 수많은 학업
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

00:04:54.593 --> 00:04:57.547

많은 요소 중에서 평가관이 봤을 때,

00:04:57.647 --> 00:05:01.907

한 명의 학생에 대해서 이미지를
알 수 있는 교과 성적이야말로

00:05:02.007 --> 00:05:06.151

학업 역량의 핵심이라고
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00:05:06.251 --> 00:05:11.302

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
장면은 모니터 2개예요.

00:05:11.402 --> 00:05:14.564

실제로 입학사정관들이
여러분의 서류를 볼 때

00:05:14.664 --> 00:05:20.381

모니터 2개에 한쪽에는 대학 자체
학생부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.

00:05:20.481 --> 00:05:25.642

그리고 한쪽에는 학생이 제출한
자소서를 동시에 띄워놓고 봅니다.

00:05:25.742 --> 00:05:28.049

요즘은 자소서를 먼저 읽어보고

00:05:28.149 --> 00:05:31.748

왼쪽에 있는 학생부 관련
자료를 보게 되는데요.

00:05:31.848 --> 00:05:34.347

대학이 보게 된 학생부는

00:05:34.447 --> 00:05:39.068

우리가 실제로 출력해보는 학생부와는
다른 양식으로 갑니다.

00:05:39.168 --> 00:05:43.741

대학이 어떤 특성화된 프로그램을
통해서 학생부를 봐요.

00:05:43.841 --> 00:05:46.590

여러분이 실제로 본 학생부와는
다른 화면으로 봅니다.

00:05:46.690 --> 00:05:49.551

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가동했을 때

00:05:49.651 --> 00:05:54.503

제일 먼저 나오는 첫 화면,
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?

00:05:54.603 --> 00:05:56.924

바로 이겁니다.

00:05:57.024 --> 00:06:02.711

성적을 나타내는 그래프가
프로그램 가동과 동시에,

00:06:02.811 --> 00:06:04.375

바로 뜨게 돼요.

00:06:04.475 --> 00:06:06.091

성적의 그래프.

00:06:06.191 --> 00:06:09.402

이 학생이 전체 성적이
얼마큼 나오느냐?

00:06:09.502 --> 00:06:12.189

아니면 특정 과목의 성적이
얼마큼 나오느냐?

00:06:12.289 --> 00:06:14.164

특정 과목을 조합했을 때,

00:06:14.264 --> 00:06:16.104

예를 들어 이공계 같은
경우에는 수학과 과학.

00:06:16.204 --> 00:06:18.212

인문계 같은 경우에는
국어, 영어, 사회.

00:06:18.312 --> 00:06:22.398

이런 과목을 조합해서 성적의
추이가 한 번에 나와요.

00:06:22.498 --> 00:06:23.846

이 이야기는 뭘까요?

00:06:23.946 --> 00:06:26.834

학생의 첫인상이 뭘니까?

00:06:26.934 --> 00:06:30.169

교과 성적이 여러분의
첫인상을 결정하게 됩니다.

00:06:30.269 --> 00:06:32.770

물론 이거는 아주 결정적인
요소는 아니에요.

00:06:32.870 --> 00:06:34.320

다양한 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.

00:06:34.420 --> 00:06:36.388

하지만 첫인상을
좌우하는 게 바로 뭐다?

00:06:36.488 --> 00:06:38.218

여러분의 교과 성적입니다.

00:06:38.318 --> 00:06:41.882

그다음에 항목 별로 클릭을 해보면,

00:06:41.982 --> 00:06:45.135

작아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
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

00:06:45.235 --> 00:06:46.719

하나하나 조금씩 나와요.

00:06:46.819 --> 00:06:51.007

이 화면과 오른쪽에 있는
자기소개서를 비교해보면서

00:06:51.107 --> 00:06:54.588

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
평가하게 됩니다.

00:06:54.688 --> 00:06:57.839

입학사정관이 보는
첫 화면이 뭐라고요?

00:06:57.939 --> 00:06:59.824

여러분의 교과 성적이에요.

00:06:59.924 --> 00:07:02.012

교과 성적의 전체
성적을 볼 수도 있고

00:07:02.112 --> 00:07:06.851

클릭에 따라서 한 과목
그리고 특정 과목의 조합에 따라서도

00:07:06.951 --> 00:07:09.920

충분히 그래프가 나오기 때문에
한 눈에 딱 보여요.

00:07:10.020 --> 00:07:13.521

이 학생의 성적이 상승
곡선이나, 하락 곡선이나,

00:07:13.621 --> 00:07:17.167

왔다갔다 하느냐, 정체냐를
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.

00:07:17.267 --> 00:07:20.612

따라서 교과 성적이라는 것은
중요해요.

00:07:20.712 --> 00:07:24.924

왜 중요합니까? 여러분의 첫인상을
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.

00:07:25.024 --> 00:07:28.074

첫인상이 좋은 친구들은
평가원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?

00:07:28.174 --> 00:07:30.557

그 뒤에 나오는 여러
가지 항목들을 봤을 때

00:07:30.657 --> 00:07:32.085

좋은 이미지를 갖게 돼요.

00:07:32.185 --> 00:07:36.617

그런데 첫인상이 안 좋은 친구는
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가 있겠죠.

00:07:36.717 --> 00:07:41.342

그래서 교과 성적이 굉장히
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07:41.442 --> 00:07:45.996

그렇다면 교과 성적, 즉 내신을
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?

00:07:46.096 --> 00:07:52.992

첫 번째, 예전에는 전체 내신을

가지고 학생을 뽑았어요.

00:07:53.092 --> 00:07:55.491

특히 학생부 교과
전형 같은 경우에는

00:07:55.591 --> 00:07:59.384

학년 별, 그리고
과목 별 조합을 해서

00:07:59.484 --> 00:08:01.885

전체 성적을 가지고 학생
순위를 짝 매깁니다.

00:08:01.985 --> 00:08:06.742

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
그런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에요.

00:08:06.842 --> 00:08:11.795

1.5인 학생이 붙고 1.6인
학생이 떨어지는 전형이 아닙니다.

00:08:11.895 --> 00:08:15.759

2.0인 학생이 붙을 수 있고 1.5인
학생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.

00:08:15.859 --> 00:08:17.659

그래서 학생부 조합
전형 같은 경우에는

00:08:17.759 --> 00:08:23.731

전체적인 성적보다는 전공과
관련돼있는 특정 교과 성적이

00:08:23.831 --> 00:08:26.038

훨씬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.

00:08:26.138 --> 00:08:31.584

예를 들어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지원하는
학생이 A, B 있다고 칩시다.

00:08:31.684 --> 00:08:36.633

A라는 친구는 전체 내신의 평균을
내봤더니 1.5라는 성적이 나와요.

00:08:36.733 --> 00:08:42.713

B라는 학생은 전체 내신의 평균이
2.0이라는 성적이 나옵니다.

00:08:42.813 --> 00:08:45.337

보통 이렇게 보면 A라는 학생이

00:08:45.437 --> 00:08:49.057

훨씬 더 능력이 좋다고
판단이 될 것 같아요.

00:08:49.157 --> 00:08:51.442

그런데 안을 들여다 봤더니

00:08:51.542 --> 00:08:54.886

A 학생이 갖고 있는 수학과

물리의 성적이 2.0이에요.

00:08:54.986 --> 00:09:01.260
그런데 전체 성적이 2.0인 B 학생의
수학과 물리 성적은 1.5입니다.

00:09:01.360 --> 00:09:04.456
전체 성적은 A가 훨씬
더 좋을지 모르지만,

00:09:04.556 --> 00:09:07.767
과목 별, 특히 전공인
기계공학과 관련이 있는

00:09:07.867 --> 00:09:11.312
수학과 물리 성적 자체는
B라는 학생이 더 좋아요.

00:09:11.412 --> 00:09:16.634
따라서 평가관들은 누가 더 학업
역량이 높다고 평가할까요?

00:09:16.734 --> 00:09:22.144
아마도 B학생이 더 높다고
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
00:09:22.244 --> 00:09:24.525
그래서 여러분은 학종 시대,

00:09:24.625 --> 00:09:29.714
물론 전체 과목을 종합적으로
균형감있게 가져가는 거 중요합니다.

00:09:29.814 --> 00:09:31.923
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뭐다?

00:09:32.023 --> 00:09:37.110
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공과
관련된 교과 과목의 성적을

00:09:37.210 --> 00:09:39.773
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

00:09:39.873 --> 00:09:44.911
특히 이공계는 수학 과목의
성적에 많은 가중치를 둡니다.

00:09:45.011 --> 00:09:46.534
이 점을 꼭 기억해주시고요.

00:09:46.634 --> 00:09:51.271
기본적으로 교과 내신은
2.0 정도를 받아줘야

00:09:51.371 --> 00:09:55.361
이 학생이 교과 관련 경쟁력이
있다고 평가하게 돼요.

00:09:55.461 --> 00:09:57.934
특히 이공계의 경우는 이거를
더 확실하게 봅니다.

00:09:58.034 --> 00:10:01.861

문과 같은 경우에는 성적의
분포를 유도리있게 보십니다.

00:10:01.961 --> 00:10:04.261

왜냐하면 다른 능력이
더 중요하기 때문에.

00:10:04.361 --> 00:10:07.592

그런데 이공계 같은 경우, 특히
기계 공학 쪽 같은 경우에는

00:10:07.692 --> 00:10:11.694

교수님들이 수학적 능력을
정말로 높게 쳐줘요.

00:10:11.794 --> 00:10:15.581

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수학
성적의 교과 대신 관리를

00:10:15.681 --> 00:10:18.372

정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.

00:10:18.472 --> 00:10:22.400

물론 교대라든가 사대처럼
특수 대학의 경우는

00:10:22.500 --> 00:10:24.394

전체 내신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,

00:10:24.494 --> 00:10:27.980

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과에
따라서 전체적인 내신을

00:10:28.080 --> 00:10:30.374

균형감있게 가져가는 게 좋고요.

00:10:30.474 --> 00:10:34.911

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과목의
내신이 상대적으로 확 떨어져요.

00:10:35.011 --> 00:10:36.600

포기하는 과목이라는 거잖아요?

00:10:36.700 --> 00:10:40.480

그러면 성실성의 문제가 있다고
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,

00:10:40.580 --> 00:10:44.676

포기하는 과목이라 할지라도
지나치게 성적이 낮은 과목을

00:10:44.776 --> 00:10:47.165

유지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.

00:10:47.265 --> 00:10:48.685

왜냐하면 이게 너무 티가 나잖아요.

00:10:48.785 --> 00:10:51.082

이 학생이 어떤 과목은

1등급을 받는데,

00:10:51.182 --> 00:10:53.038

좀 자기와 상관이 없는
과목 같은 경우는

00:10:53.138 --> 00:10:54.752

공부를 아예 안 해서
6등급을 받아요.

00:10:54.852 --> 00:10:58.629

그러면 이 학생은 기본적으로
성실성이 부족한 친구라고

00:10:58.729 --> 00:10:59.763

판단할 수는 있습니다.

00:10:59.863 --> 00:11:01.141
이런 거를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,

00:11:01.241 --> 00:11:05.670
아무리 버리는 과목이라 할지라도 어느
정도의 관리는 해줄 필요가 있다.

00:11:05.770 --> 00:11:07.707
이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.

00:11:07.807 --> 00:11:09.708
제가 아까 말씀드렸다고,

00:11:09.808 --> 00:11:13.450
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에 따라서
전공 과목이 다릅니다.

00:11:13.550 --> 00:11:15.251
전공 과목의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

00:11:15.351 --> 00:11:19.662
계열 별로 좀 더 선택과 집중을
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.

00:11:19.762 --> 00:11:21.668
예를 들어 어문계열 같은 경우에는

00:11:21.768 --> 00:11:25.932
언어와 관련된 과목의
중요성을 띠겠죠.

00:11:26.032 --> 00:11:30.395
그래서 국어라든가 영어, 그리고
특히 제2외국어와 관련된

00:11:30.495 --> 00:11:33.981
교과의 성적은 관리를
잘하셔야 됩니다.

00:11:34.081 --> 00:11:35.887
특히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,

00:11:35.987 --> 00:11:39.464
일본어 학과 가는 친구들은 일본어,

00:11:39.564 --> 00:11:44.951

중국어 학과 가는 친구들은
중국어 관련 과목의 성적을

00:11:45.051 --> 00:11:46.222

잘 관리하셔야 돼요.

00:11:46.322 --> 00:11:47.816

특히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

00:11:47.916 --> 00:11:50.874

웬만하면 1등급을 받도록
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

00:11:50.974 --> 00:11:52.195

굉장히 중요해요.

00:11:52.295 --> 00:11:55.612

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
영어랑 관련 사회 과목.

00:11:55.712 --> 00:11:58.078

경영학, 경제학 같은
경우가 되겠죠?

00:11:58.178 --> 00:12:02.739

그리고 상경계열은 문과이지만
수학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

00:12:02.839 --> 00:12:06.619

수학 과목도 유심히 보는
과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

00:12:06.719 --> 00:12:09.132

수학 과목의 관리도 할
필요가 있습니다.

00:12:09.232 --> 00:12:13.538

당연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
수학이 기본이고 관련된 교과.

00:12:13.638 --> 00:12:16.146

공학 계통 경우에는
물리 과목이고요.

00:12:16.246 --> 00:12:20.619

생명화학 같은 경우에는
생명화학 관련 교과의 내신을

00:12:20.719 --> 00:12:22.681

굉장히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.

00:12:22.781 --> 00:12:26.394

전체 내신보다는 무조건
관련된 교과 내신의 관리가

00:12:26.494 --> 00:12:28.621

훨씬 더 중요합니다.

00:12:28.721 --> 00:12:34.299

아까 보셨죠? 전체적인
추이를 볼 수 있기 때문에

00:12:34.399 --> 00:12:38.189
웬만하면 무조건 어떤 곡선?

00:12:38.289 --> 00:12:41.839
상승 곡선을 띠도록
관리를 하셔야 돼요.

00:12:41.939 --> 00:12:45.498
한마디로 전체적인
하락곡선이라든가 M자.

00:12:45.598 --> 00:12:49.866
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봤을 때 성적이
떨어지는 분포는 굉장히 안 좋아요.

00:12:49.966 --> 00:12:54.079
W가 됐든, 쪽
올라가든 어찌됐든 간에

00:12:54.179 --> 00:12:57.488
마지막 3학년 1학기의 성적
정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

00:12:57.588 --> 00:13:01.694
올라가는 상승 추이의 곡선을
만들 필요가 있습니다.

00:13:01.794 --> 00:13:04.270
제일 나쁜 거는 떨어지는 거예요.

00:13:04.370 --> 00:13:09.197
그래서 이러한 적용은 학년과
학기 모두 다 적용이 됩니다.

00:13:09.297 --> 00:13:11.803
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,

00:13:11.903 --> 00:13:14.406
기본적으로 봤을 때 입시에서

00:13:14.506 --> 00:13:19.064
가장 가까운 시기의 내신 성적이
좋아야 된다는 겁니다.

00:13:19.164 --> 00:13:20.174
이런 거죠.

00:13:20.274 --> 00:13:23.142
1학년 1학기보다는 1학년 2학기.

00:13:23.242 --> 00:13:25.935
1학년 2학기보다는 2학년 1학기.

00:13:26.035 --> 00:13:27.308
그다음에 2학년 2학기,

00:13:27.408 --> 00:13:30.065
최종적으로 3학년 1학기의

성적이 좋아져야 됩니다.

00:13:30.165 --> 00:13:32.989

그래야지 상승 곡선을
떨 수가 있어요.

00:13:33.089 --> 00:13:35.726

그리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,

00:13:35.826 --> 00:13:40.599

1학년보다는 2학년의 성적이 2학년보다는
3학년의 성적이 더 좋은 게,

00:13:40.699 --> 00:13:44.990

여러분의 성장하는 모습을
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.

00:13:45.090 --> 00:13:48.978

이 성장 곡선이라는 거는
여러분의 교내 활동을

00:13:49.078 --> 00:13:53.916

좀 더 멋있게 포장해줄 수
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.

00:13:54.016 --> 00:13:57.959

기본적으로 1학기보다는
2학기의 성적이 좋아야 돼요.

00:13:58.059 --> 00:14:01.425

특히 일련에 걸쳐있는
같은 과목이라든지

00:14:01.525 --> 00:14:04.636

명칭은 다르지만
본질적으로 같은 과목,

00:14:04.736 --> 00:14:06.839

예를 들어 1학기에
실용영어를 배웠으면

00:14:06.939 --> 00:14:09.500

2학기 때는 독해와 장문을
배우는데 둘 다 영어잖아요?

00:14:09.600 --> 00:14:12.813

그러면 1학기 성적보다 2학기
성적이 좋아야 돼요.

00:14:12.913 --> 00:14:16.145

왜 그래야 될까요?
이유는 간단합니다.

00:14:16.245 --> 00:14:17.588

일단 노력이에요.

00:14:17.688 --> 00:14:20.523

여러분이 성적이 떨어졌는데
올라갔다는 거는

00:14:20.623 --> 00:14:23.165

이 학생이 부족한 점을
알고 열심히 노력했다는 겁니다.

00:14:23.265 --> 00:14:24.917
그리고 여러분이 활동을
많이 하잖아요.

00:14:25.017 --> 00:14:28.214
제가 이야기했었죠?
교과 중심의 활동이라고.

00:14:28.314 --> 00:14:31.148
결과적으로 이 활동들은
여러분의 능력이라든가,

00:14:31.248 --> 00:14:34.613
적성은 돋보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

00:14:34.713 --> 00:14:39.582
여러분이 진학하게 될 학과와
관련이 있는 교과있죠?

00:14:39.682 --> 00:14:42.069
교과에서 파생된 활동이잖아요.

00:14:42.169 --> 00:14:43.608
그러면 그 활동을 왜 했겠어요?

00:14:43.708 --> 00:14:46.043
여러분이 그 교과에 관심이
있기 때문에 한 거죠?

00:14:46.143 --> 00:14:49.910
그러면 이렇게 교과에서
촉발된 활동들은

00:14:50.010 --> 00:14:55.026
결과적으로 보면 교과의 성적이
어떻게든 도움이 돼야 됩니다.

00:14:55.126 --> 00:14:59.676
교과에 호기심이 생겨서,
이 교과는 전공과 관련된 교과예요.

00:14:59.776 --> 00:15:02.542
이 교과에 관심이 있어서
활동을 했는데

00:15:02.642 --> 00:15:05.887
이 활동을 하다보면 당연히 공부할
시간이 부족해지기도 합니다.

00:15:05.987 --> 00:15:09.316
그런데 이로 인해 결국
교과 성적이 떨어지잖아요?

00:15:09.416 --> 00:15:13.734
그러면 여러분이 해왔던
교과의 진정성이,

00:15:13.834 --> 00:15:17.394

혹은 가치라는 게 빛을 바래버립니다.

00:15:17.494 --> 00:15:20.855
왜냐하면 어차피 활동도 중요하지만

00:15:20.955 --> 00:15:24.244
기본적인 베이스는 뭐라 그랬어요?
교과라 그랬어요.

00:15:24.344 --> 00:15:26.997
활동을 했는데 성적이 떨어진다?

00:15:27.097 --> 00:15:28.488
평가관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?

00:15:28.588 --> 00:15:31.824
차라리 애는 활동의 횟수를
줄이고 공부를 하지.

00:15:31.924 --> 00:15:34.314
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.

00:15:34.414 --> 00:15:36.003
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,

00:15:36.103 --> 00:15:39.103
1학기보다는 2학기의
성적이 더 좋아야 돼요.

00:15:39.203 --> 00:15:43.866
그리고 학년으로 갈수록 성적은
상승 곡선을 보여줘야 됩니다.

00:15:43.966 --> 00:15:52.109
그래야 여러분이 해왔던 활동의 가치가
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되겠죠.

00:15:52.209 --> 00:15:54.092
빛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
더 발하게 됩니다.

00:15:54.192 --> 00:15:55.873
그래서 성적의 상승,
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15:55.973 --> 00:15:58.241
2학기 성적, 이거예요.

00:15:58.341 --> 00:16:02.943
여러분의 발전 가능성을
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.

00:16:03.043 --> 00:16:05.359
2학기 성적이 1학기
성적보다 떨어진다?

00:16:05.459 --> 00:16:07.894
물론 여러분이 노력은
굉장히 많이 했겠지만,

00:16:07.994 --> 00:16:10.108

어쨌든 결과는 안 좋았기 때문에

00:16:10.208 --> 00:16:12.748
여러분의 노력은 수포가 돼버립니다.

00:16:12.848 --> 00:16:17.137
그리고 성적이 올라야지만
노력과 확장의 결과라고

00:16:17.237 --> 00:16:18.774
객관적으로 인지를 하죠.

00:16:18.874 --> 00:16:20.660
그리고 나중에 여러분
자소서를 쓸 때에도

00:16:20.760 --> 00:16:24.032
스토리라는 측면을 봤을 때 굉장히
멋진 스토리가 나옵니다.

00:16:24.132 --> 00:16:26.964
이런 활동을 했는데
오히려 성적이 떨어졌다?

00:16:27.064 --> 00:16:30.165
그 활동을 가지고 자기
소개서를 쓰기에는

00:16:30.265 --> 00:16:32.357
뭔가 아쉬움이 남겠죠.

00:16:32.457 --> 00:16:36.989
그래서 여러분 2학기가 되면
1학기보다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

00:16:37.089 --> 00:16:42.364
어떻게든지 성적이 오르게끔, 최소한
떨어지지 않게끔은 하셔야 돼요.

00:16:42.464 --> 00:16:47.799
떨어지게 된다면 그와 관련된
교과가 전공과 관련이 있고

00:16:47.899 --> 00:16:52.177
그와 관련된 활동 역시 전공과
밀접한 관련이 있어도

00:16:52.277 --> 00:16:57.324
그러한 활동의 가치는 정말로
여러분의 노력과 과정과 상관없이

00:16:57.424 --> 00:17:00.263
평가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

00:17:00.363 --> 00:17:04.310
그래서 2학기 성적 그리고
다음 학년의 성적 관리.

00:17:04.410 --> 00:17:06.829
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17:06.929 --> 00:17:09.917

2학년의 성적은 그
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00:17:10.017 --> 00:17:12.394

왜냐하면 1학년은 변명의
여지가 있어요.

00:17:12.494 --> 00:17:17.038

처음이고 애는 1학년 때
고민을 많이 했구나,

00:17:17.138 --> 00:17:18.691

그런데 2학년 때 성적이 올랐네?

00:17:18.791 --> 00:17:22.084

애는 이제 정신 차리고 자신의
갈 길을 잡았구나, 이렇게 판단해요.

00:17:22.184 --> 00:17:25.425

더군다나 2학년은
계열이 분리되잖아요.

00:17:25.525 --> 00:17:30.623

문과와 이과가 분리되고
여러분이 무엇을 전공 할 것인지

00:17:30.723 --> 00:17:32.833

거의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.

00:17:32.933 --> 00:17:36.613

그리고 여러분의 활동의
방향성이 명확해져요.

00:17:36.713 --> 00:17:39.661

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
최선을 다하셔야 돼요.

00:17:39.761 --> 00:17:41.894

그렇지 않으면 3학년 때 힘듭니다.

00:17:41.994 --> 00:17:45.641

3학년이 일단 가장
비중이 크고 가치가 높지만,

00:17:45.741 --> 00:17:49.137

3학년 때는 여러분과
여러분의 친구가

00:17:49.237 --> 00:17:52.210

그 어떤 시기보다 공부를
제일 많이 할 때예요.

00:17:52.310 --> 00:17:59.796

고교 생활에서 이렇게
많이 공부했던 시기는

00:17:59.896 --> 00:18:01.819

3학년 1학기가 유일합니다.

00:18:01.919 --> 00:18:05.543

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의
성적을 올리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.

00:18:05.643 --> 00:18:07.032
다같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.

00:18:07.132 --> 00:18:10.270
그래서 2학년 때, 어떻게든
성적을 올려놔야지만

00:18:10.370 --> 00:18:13.333
여러분의 활동이 폭이
넓어진다고 합니다.

00:18:13.433 --> 00:18:16.411
이 점을 꼭 염두하셔서,
특히 2학년 학생.

00:18:16.511 --> 00:18:19.305
지금 고1이고 2학년
올라가는 시점의 학생들은

00:18:19.405 --> 00:18:24.524
정말로 내신 관리를 2학년 때
정신 바짝 차리고 하셔야 됩니다.

00:18:24.624 --> 00:18:26.249
굉장히 중요해요.

00:18:26.349 --> 00:18:28.636
그리고 3학년 2학기의
팁을 드리겠습니다.

00:18:28.736 --> 00:18:31.955
보통 3학년이 되면 1학기 때
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.

00:18:32.055 --> 00:18:35.363
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때 성적의
비중과 가치가 제일 커요.

00:18:35.463 --> 00:18:40.267
그런데 3학년 2학기가
되면 많은 학생들이

00:18:40.367 --> 00:18:42.385
내신 관리를 생각보다
하지 않습니다.

00:18:42.485 --> 00:18:46.760
거의 3학년 2학기 중간,
기말 시험에 대해서

00:18:46.860 --> 00:18:50.240
신경쓰는 학생이 대폭
줄어들게 됩니다.

00:18:50.340 --> 00:18:53.627
왜냐하면 일단 현실적인
이유 때문에 그래요.

00:18:53.727 --> 00:18:59.489

수시의 성적 반영은 3학년
1학기 때 성적만 들어갑니다.

00:18:59.589 --> 00:19:04.130

그러다 보니까 3학년 2학기는
수능 공부다, 논술 준비다,

00:19:04.230 --> 00:19:07.042

자소서 준비다, 면접 준비라고 해서

00:19:07.142 --> 00:19:10.319

3학년 2학기 성적에 대해서
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요.

00:19:10.419 --> 00:19:13.468

왜냐하면 3학년 2학기
성적에 필요한 거는

00:19:13.568 --> 00:19:16.508

만약에 그 다음 해에 대학을
지원할 때 필요하거든요.

00:19:16.608 --> 00:19:20.553

그런데 친구들이 재수를 염두해두고
대학 입시를 결정하지는 않죠.

00:19:20.653 --> 00:19:23.671

일단 올해 웬만하면 붙겠다는
마음으로 가기 때문에,

00:19:23.771 --> 00:19:25.277

현재에 충실하게 돼요.

00:19:25.377 --> 00:19:28.192

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
비중, 관심도가 떨어지는

00:19:28.292 --> 00:19:31.688

3학년 2학기 성적이
생각보다 많이 떨어져요.

00:19:31.788 --> 00:19:36.284

많이 떨어진 친구들은 1.0
이상이 떨어지기도 합니다.

00:19:36.384 --> 00:19:40.601

물론 3학년 2학기 성적은
그 해 수시에 들어가지 않고

00:19:40.701 --> 00:19:43.074

정시는 거의 수능 100%이기 때문에

00:19:43.174 --> 00:19:48.745

영향력 자체가 미미하다고
할 수 있습니다.

00:19:48.845 --> 00:19:50.977

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게

00:19:51.077 --> 00:19:54.002

항상 여러분이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죠.

00:19:54.102 --> 00:19:56.918
그리고 설사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에 갔을지라도

00:19:57.018 --> 00:19:59.940
여러분 마음과 안 맞을 수도 있죠.

00:20:00.040 --> 00:20:01.480
생각했던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.

00:20:01.580 --> 00:20:03.874
그리고 좀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.

00:20:03.974 --> 00:20:07.127
그래서 그 다음에 지원하게 되는데 문제는

00:20:07.227 --> 00:20:08.976
그때는 3학년 2학기의 성적이 들어갑니다.

00:20:09.076 --> 00:20:12.711
그런데 3학년 2학기의 성적이 3학년 1학기과 비교했을 때

00:20:12.811 --> 00:20:14.996
그렇게 차이가 없으면 괜찮아요.

00:20:15.096 --> 00:20:18.532
그런데 문제는 많은 학생의 3학년 2학기 때의 성적은

00:20:18.567 --> 00:20:19.929
대폭 하락하게 되고요.

00:20:19.961 --> 00:20:25.056
특히 중상위권의 학생들이 정말로 성적이 많이 떨어집니다.

00:20:25.125 --> 00:20:29.225
그런데 이거를 갖고 논술, 이런 데는 상관없습니다.

00:20:29.325 --> 00:20:31.065
학생부의 비중이 적기 때문에.

00:20:31.165 --> 00:20:35.871
그런데 학생부의 비중이 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,

00:20:35.971 --> 00:20:40.057
대폭 하락된 3학년 2학기의 성적은 뭐를 의미할까요?

00:20:40.157 --> 00:20:45.648
여러분은 성실하지 않다는 것을 인증해주는 자료가 됩니다.

00:20:45.748 --> 00:20:50.571

그래서 3학년 2학기의 성적을
상승하라는 거는 아니에요.

00:20:50.671 --> 00:20:54.406

어차피 3학년 2학기의
내신 시험 범위는

00:20:54.506 --> 00:20:56.852

수능 범위와 거의 동일합니다.

00:20:56.952 --> 00:21:00.544

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라면
충분히 대비할 수 있어요.

00:21:00.644 --> 00:21:05.300

문제는 3학년 2학기 중간
고사 때는 어느 정도해요.

00:21:05.400 --> 00:21:06.999

기말 고사를 많이 안 합니다.

00:21:07.099 --> 00:21:09.472

왜냐하면 기말 고사는
수능을 보고 치거든요.

00:21:09.572 --> 00:21:13.089

그런데 그때 많은 친구들이
장난으로 찍고 자거나

00:21:13.189 --> 00:21:14.757

공부를 거의 안 하고 봐요.

00:21:14.857 --> 00:21:18.540

그래서 여러분은 3학년 2학기
성적을 올리지는 않되,

00:21:18.640 --> 00:21:24.200

최소한 대폭적인 하락은 보이지
않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.

00:21:24.300 --> 00:21:28.541

왜? 여러분이 그 다음에
어떻게 될지 모르고요.

00:21:28.641 --> 00:21:31.975

특히 학종을 지원했던 친구들은
대부분 학종을 다시 지원하거든요.

00:21:32.075 --> 00:21:33.724

왜냐하면 학종이라는 전형 자체가

00:21:33.824 --> 00:21:36.463

그렇게 노력이 많이 드는
전형은 아니잖아요.

00:21:36.563 --> 00:21:40.885

자료는 다 만들어져 있고 자기소개서
정도만 다시 하면 되니까,

00:21:40.985 --> 00:21:43.320
학종을 지원했던 많은 친구들은

00:21:43.420 --> 00:21:46.150
다시 한 번 도전을
하거든요, 높은 대학에.

00:21:46.250 --> 00:21:49.845
그때 3학년 2학기 성적이
들어간다는 사실.

00:21:49.945 --> 00:21:51.245
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

00:21:51.345 --> 00:21:53.188
특히 학종을 지원한
친구 같은 경우에는

00:21:53.288 --> 00:21:56.219
그다음에 정말로 자기가
지원한 대학에 붙었어요.

00:21:56.319 --> 00:21:59.111
붙었다할지라도 마음에 들지
않을 수 있기 때문에,

00:21:59.211 --> 00:22:01.133
충분히 재도전 가능하거든요.

00:22:01.233 --> 00:22:06.167
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3학년
2학기 성적은 어떻게 해라?

00:22:06.267 --> 00:22:10.762
최소한 떨어지지 않게는
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.

00:22:10.862 --> 00:22:12.668
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

00:22:12.768 --> 00:22:14.786
많이 놓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.

00:22:14.886 --> 00:22:17.461
선택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.

00:22:17.561 --> 00:22:19.756
여러분 이제 고등학교
1학년은 선택과목이 없죠.

00:22:19.856 --> 00:22:21.518
웬만하면 거의 다
공통과목으로 됩니다.

00:22:21.618 --> 00:22:24.688
그런데 계열이 나뉘게
되는 2학년 때는

00:22:24.788 --> 00:22:27.160
문과, 이과에 따라
선택과목이 다르구요.

00:22:27.260 --> 00:22:30.329

같은 이공계라든가,
같은 인문계에 따라서도

00:22:30.429 --> 00:22:32.611

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.

00:22:32.711 --> 00:22:38.522

그런데 예전에는 철저하게
선택과목을 수능과목에 맞춰서 했어요.

00:22:38.622 --> 00:22:44.357

자기가 수능과목에 시험을 볼,
혹은 수능과목에서 좀 더 유리한

00:22:44.457 --> 00:22:46.425

그런 과목을 선택을 했습니다.

00:22:46.525 --> 00:22:49.076

철저하게 수능 중심으로 갔는데,

00:22:49.176 --> 00:22:54.435

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
혹은 입시에 들어가게 되면,

00:22:54.535 --> 00:22:57.882

수능의 비중이 물론
중요하기는 하지만

00:22:57.982 --> 00:23:03.690

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커다란
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아요.

00:23:03.790 --> 00:23:07.333

그래서 여러분은 2학년 때,
혹은 3학년 때,

00:23:07.433 --> 00:23:12.903

선택과목이라는 거는 수능 때
유리하냐, 불리하냐의 기준보다는

00:23:13.003 --> 00:23:15.122

학종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는

00:23:15.222 --> 00:23:20.192

전공 중심으로 가줄
필요가 있습니다.

00:23:20.292 --> 00:23:22.302

즉 여러분이 전공을 하게 될,

00:23:22.402 --> 00:23:28.542

즉 지원하게 될 학과와 관련이
있는 과목을 선택하셔야 돼요.

00:23:28.642 --> 00:23:33.611

그 과목의 난이도, 과목의
유불리와 상관없이 말이죠.

00:23:33.711 --> 00:23:38.035

학중은 이야기했었죠?
정성평가입니다.

00:23:38.135 --> 00:23:43.259
물론 전공과 관련된
교과의 내신은 많이 보지만

00:23:43.359 --> 00:23:47.992
만약에 이 학생이
선택을 안 했어요.

00:23:48.092 --> 00:23:49.998
과목별 난이도에 따라서.

00:23:50.098 --> 00:23:52.444
왜냐하면 물리라든가
경제가 어렵잖아요.

00:23:52.544 --> 00:23:54.826
물리 같은 경우에는
계산식이 많기 때문에

00:23:54.926 --> 00:23:56.846
특히 여학생들이
꺼려하는 과목입니다.

00:23:56.946 --> 00:23:58.362
물론 남학생도 싫어해요.

00:23:58.462 --> 00:24:00.092
경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.

00:24:00.192 --> 00:24:02.612
수학적인 용어, 그래프가
많이 나오기 때문에

00:24:02.712 --> 00:24:05.034
문과에서 상대적으로
선택을 안 해요.

00:24:05.134 --> 00:24:08.593
그래서 일반고에서는 대부분
물리라든가 물리2 같은 경우.

00:24:08.693 --> 00:24:12.900
물리라든가 경제 과목에 대해서
선택을 안 하는 친구가 많습니다.

00:24:13.000 --> 00:24:17.747
문제는 물리1 같은 경우에는 거의
다 개설이 되어 있어요.

00:24:17.847 --> 00:24:20.768
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도 만약에
개설이 되어 있습니다.

00:24:20.868 --> 00:24:26.206
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어떤 과목의
난이도 때문에 선택을 안 했어요.

00:24:26.306 --> 00:24:29.734

공학 계열 가는 친구들이
물리2가 개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

00:24:29.834 --> 00:24:31.114
선택을 안 합니다.

00:24:31.214 --> 00:24:35.044
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그 어려운
경제 과목은 개설이 되어있어요.

00:24:35.144 --> 00:24:38.990
되어있는데 어렵기 때문에, 내신
따기 힘들어서 선택을 안 했어요.

00:24:39.090 --> 00:24:42.613
그런데 문제는 기계공학 쪽,
공학 계열 친구들이

00:24:42.713 --> 00:24:45.252
지원할 친구가 물리 선택을 안 하고

00:24:45.352 --> 00:24:49.893
상경제열 쪽을 지원할 친구가
경제 과목 선택을 안 하면

00:24:49.993 --> 00:24:55.442
그 점수와 상관없이 그 학생은 무조건
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

00:24:55.542 --> 00:24:58.103
평가관들은 굉장히 예리해요.

00:24:58.203 --> 00:25:00.195
평가관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는

00:25:00.295 --> 00:25:03.316
입학사정과 역사까지
포함하면 10년입니다.

00:25:03.416 --> 00:25:05.643
학종만 치면 4년이에요.

00:25:05.743 --> 00:25:10.447
이 기간 동안 정말 수만 명의
학생 데이터를 보신 분들입니다.

00:25:10.547 --> 00:25:12.530
여러분 꿈수 다 알고 계세요.

00:25:12.630 --> 00:25:16.743
그래서 여러분, 만약에 어려운
과목이지만 개설이 되어 있어요.

00:25:16.843 --> 00:25:20.042
그런데 문제는 자기가
진학하고 싶은 학과가

00:25:20.142 --> 00:25:24.297
그 과목이랑 연관이
있으면 눈물을 머금고

00:25:24.397 --> 00:25:26.366
그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.

00:25:26.466 --> 00:25:29.240
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돼요.

00:25:29.340 --> 00:25:33.448
성적과 상관없이 만약에
선택을 하지 않아요.

00:25:33.548 --> 00:25:36.906
그러면 여러분은 학종이라는 전형에서

00:25:37.006 --> 00:25:39.997
정말로 감점을 당할 확률이
높아지게 됩니다.

00:25:40.097 --> 00:25:41.505
기억하셔야 됩니다.

00:25:41.605 --> 00:25:44.417
문제는 없는 경우죠.

00:25:44.517 --> 00:25:48.921
물리 2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계산을
많이 안 해요, 특정 학교 빼고는.

00:25:49.021 --> 00:25:51.286
경제 과목도 그렇습니다.

00:25:51.386 --> 00:25:52.536
왜냐하면 학교가 알아요.

00:25:52.636 --> 00:25:54.648
물리2라든가 경제
과목 같은 경우에는

00:25:54.748 --> 00:25:58.398
수능에서도 잘 선택을 하지 않는
과목이고 어려운 과목입니다.

00:25:58.498 --> 00:26:02.391
그래서 웬만하면 개설을
하지 않습니다.

00:26:02.491 --> 00:26:05.539
특히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
보통 많은 학교들이

00:26:05.639 --> 00:26:08.517
요즘 중국어랑 일본어
개설이 많이 되어있어요.

00:26:08.617 --> 00:26:11.630
간혹 독일어라든가 불어가
개설되어있기도 한데.

00:26:11.730 --> 00:26:13.823
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
학과는 많아요.

00:26:13.923 --> 00:26:17.378

굉장히 많지만 개설되어있는
학교는 굉장히 적습니다.

00:26:17.478 --> 00:26:22.301

이런 경우 크게 문제가
없어요, 왜냐하면 없으니까.

00:26:22.401 --> 00:26:25.360

우리 학교에 개설 자체가
되지 않았기 때문에

00:26:25.460 --> 00:26:30.858

이런 과목을 들었다 안 들었다
가지고는 마이너스는 없습니다.

00:26:30.958 --> 00:26:35.154

그런데 요즘은 또 나라에서
이것도 해줬어요.

00:26:35.254 --> 00:26:37.917

왜냐하면 우리 학교에
개설되어있지는 않았어요.

00:26:38.017 --> 00:26:40.980

학교 사정에 따라서
물리2라든가 경제가.

00:26:41.080 --> 00:26:43.732

그런데 듣고 싶은 학생이 있잖아요.

00:26:43.832 --> 00:26:48.466

이런 학생들을 위해서
나라에서는 만들어놨습니다.

00:26:48.566 --> 00:26:52.068

일단 여러분 학교 보시면,
학기 초에 올 겁니다.

00:26:52.168 --> 00:26:54.601

거점 학교, 혹은
협력 학교라고 해서

00:26:54.701 --> 00:26:59.315

다른 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형식으로
과목을 개설하는 경우가 있어요.

00:26:59.415 --> 00:27:03.955

물리2라든가 경제라든가 국제경영
이런 게 개설이 됩니다.

00:27:04.055 --> 00:27:06.699

신청을 하셔서 들을 수 있어요.

00:27:06.799 --> 00:27:10.622

그리고 방송고 수업이라고
교육개발원에서 만든

00:27:10.722 --> 00:27:12.146

온라인 수업이 있습니다.

00:27:12.246 --> 00:27:15.147

이것도 학기 초에
공문이 와서 받아요.

00:27:15.247 --> 00:27:17.736

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
듣고 싶은 과목인데,

00:27:17.836 --> 00:27:19.939

학교 교육 과정에 없는 과목이에요.

00:27:20.039 --> 00:27:24.378

이 과목은 교육개발원
방송고 홈페이지 들어가서

00:27:24.478 --> 00:27:26.962

신청을 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.

00:27:27.062 --> 00:27:30.492

이거 자체는 정식
교육 과정이기 때문에

00:27:30.592 --> 00:27:33.336

학생부 기재가 가능한 거예요.

00:27:33.436 --> 00:27:38.274

그래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
개설되어있지 않은 과목을

00:27:38.374 --> 00:27:42.081

자기의 전공과 관련있고
자기가 정말 호기심이 있어서

00:27:42.181 --> 00:27:44.380

직접 다른 학교 가서 듣고

00:27:44.480 --> 00:27:50.771

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방송고
수업을 들으면 기재가 되거든요?

00:27:50.871 --> 00:27:52.180

입사관은 알잖아요.

00:27:52.280 --> 00:27:54.626

이 학교는 이런 과목이
개설되어있지 않은데,

00:27:54.726 --> 00:27:57.362

이 학생은 굳이 가서 들었구나.

00:27:57.462 --> 00:28:01.774

뭐를 줄까요? 전공 적합성이라든가
혹은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

00:28:01.874 --> 00:28:06.852

전공 학과에 대한 열정과 진정성에
플러스 평가를 줄 겁니다.

00:28:06.952 --> 00:28:11.796

그래서 정말로 자기가 그 과목에
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,

00:28:11.896 --> 00:28:13.695
능동적으로 움직이세요.

00:28:13.795 --> 00:28:17.293
학기 초에 무조건 공문은
나가게 되어있습니다.

00:28:17.393 --> 00:28:19.074
그래서 물어보세요.

00:28:19.174 --> 00:28:23.115
학기 초에는 항상 나오기
때문에 학교 게시판에

00:28:23.215 --> 00:28:25.142
뭐가 붙어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.

00:28:25.242 --> 00:28:31.261
이러한 정보들, 입시는
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면

00:28:31.361 --> 00:28:33.217
남들보다 뒤처지게 돼요.

00:28:33.317 --> 00:28:35.157
더군다나 학종 같은 경우에는

00:28:35.257 --> 00:28:39.487
이런 활동 싸움이기 때문에 진정성
싸움이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습니다.

00:28:39.587 --> 00:28:41.588
이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.

00:28:41.688 --> 00:28:45.966
특히 물리2라든가 경제라든가
제2외국어 관련 과목은

00:28:46.066 --> 00:28:49.289
들으면 정말로 도움이 돼요.

00:28:49.389 --> 00:28:53.215
물론 이 과목 자체가
어렵기 때문에,

00:28:53.315 --> 00:28:55.775
이거는 상대평가로 하지 않습니다.

00:28:55.875 --> 00:29:01.157
절대 평가로 되거나 혹은
이수, 미수로 나가거든요.

00:29:01.257 --> 00:29:05.796
우리가 평상시에 받아보는 1등급부터
9등급 산출이 안 돼요.

00:29:05.896 --> 00:29:07.679
왜냐하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.

00:29:07.779 --> 00:29:10.102

학교 내에 개설되어 있지 않으면.

00:29:10.202 --> 00:29:13.512

그래서 부담감없이 선택해서
들을 수가 있습니다.

00:29:13.612 --> 00:29:15.987

들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
기억해주시고요.

00:29:16.087 --> 00:29:20.807

우리가 여태까지는 실제
여러분의 교과, 내신이죠.

00:29:20.907 --> 00:29:24.542

내신과 관련된 활동을 살펴봤습니다.

00:29:24.642 --> 00:29:27.783

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.

00:29:27.883 --> 00:29:33.282

교과는 학업 역량의 핵심이에요.

00:29:33.382 --> 00:29:39.392

하지만 학업 역량과 교과는
동일시되지 않습니다.

00:29:39.492 --> 00:29:41.674

결국 교과가 중요하기는 하지만

00:29:41.774 --> 00:29:44.982

학업 역량을 측정하는
하나의 항목일뿐입니다.

00:29:45.082 --> 00:29:48.273

그래서 예전에는 내신이
교과였었어요.

00:29:48.373 --> 00:29:51.234

그런데 요즘은 내신이라는 포인트를

00:29:51.334 --> 00:29:53.709

교과 전체를 나타낸다고
하지는 않습니다.

00:29:53.809 --> 00:29:55.543

그래서 여기에 뭐가 포함되냐면,

00:29:55.643 --> 00:29:58.316

요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

00:29:58.416 --> 00:30:02.858

교과목 세부 능력 평가라고
해서 세부 특기사항이라고 해서

00:30:02.958 --> 00:30:06.151

교과 선생님들이,
여러분을 수업하는 선생님들이

00:30:06.251 --> 00:30:09.932

여러분에게 대해서 수업의 내용을

적는 부분이 있습니다.

00:30:10.032 --> 00:30:13.103
일종의 교과 선생님의 추천서라고
할 수 있는 부분인데,

00:30:13.203 --> 00:30:17.373
대학들이 교과 성적과
더불어 가중치를 두고

00:30:17.473 --> 00:30:20.243
신경써서 보는 부분이
바로 교과세특이에요.

00:30:20.343 --> 00:30:26.101
따라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내신
성적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,

00:30:26.201 --> 00:30:28.639
그에 걸맞는 활동 수업을
하셔야 됩니다.

00:30:28.739 --> 00:30:34.581
그래서 교과세특에 여러분의
능력과 수업에 대한 관심이

00:30:34.681 --> 00:30:39.013
학생부에 기재돼있도록
노력하셔야 돼요.

00:30:39.113 --> 00:30:41.962
교과세특은 요즘 대세입니다.

00:30:42.062 --> 00:30:47.232
거의 교과세특의 비중은 내신의 비중과
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.

00:30:47.332 --> 00:30:49.764
학생부 종합 전형에
지원하는 학생들은

00:30:49.864 --> 00:30:52.333
아무리 내신 성적이 좋다고 할지라도

00:30:52.433 --> 00:30:55.764
그에 걸맞는 내용이
교과세특에 있지 않으면

00:30:55.864 --> 00:31:00.407
이 학생이 받은 점수의 가치는
역시 떨어지게 돼요.

00:31:00.507 --> 00:31:03.599
빛을 바라게 됩니다.

00:31:03.699 --> 00:31:06.174
발하는 게 아니라 바라져요.

00:31:06.274 --> 00:31:08.879
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
같은 경우는 힘들죠.

00:31:08.979 --> 00:31:13.622
성적도 좋아야 되고 수업 시간의 활동도
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

00:31:13.722 --> 00:31:16.937
왜냐? 교과 선생님이
여러분에 대해서 써주는

00:31:17.037 --> 00:31:18.815
추천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

00:31:18.915 --> 00:31:22.299
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
보여주는 모든 점들이

00:31:22.399 --> 00:31:24.246
교과세특에 기록이 돼요.

00:31:24.346 --> 00:31:28.682
학업 능력, 이 학생이 정말로
수업을 열심히 따라 오고,

00:31:28.782 --> 00:31:31.232
수업 태도 정말 바르고요.

00:31:31.332 --> 00:31:34.343
자세, 주도적으로
수업에 참여합니다.

00:31:34.443 --> 00:31:36.271
비전, 이 학생은
미래가 촉망되고요.

00:31:36.371 --> 00:31:38.673
이 학생이 만약에 기계공학이잖아요?

00:31:38.773 --> 00:31:41.533
훌륭한 기계공학도가
되는 게 예상이 됩니다.

00:31:41.633 --> 00:31:45.683
리더십, 조별 활동할 때 정말로
남들을 이끌고 열심히 합니다.

00:31:45.783 --> 00:31:49.051
탐구 정신, 이 학생은
수업의 어떤 활동에서

00:31:49.151 --> 00:31:54.154
다른 친구들을 리드하고
자신이 갖고 있는 비전과

00:31:54.254 --> 00:31:55.719
탐구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

00:31:55.819 --> 00:31:59.631
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과세특에
기록이 될 수 있어요.

00:31:59.731 --> 00:32:03.464

이러한 모든 것들이
교과세특에 들어있어야지만

00:32:03.564 --> 00:32:06.646
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
학생부를 만들게 됩니다.

00:32:06.746 --> 00:32:11.450
교과세특, 내신과 동급일 정도로
중요하다는 사실 기억해주시고요.

00:32:11.550 --> 00:32:15.798
결국 교과세특은 누가
기록하는 거라고요?

00:32:15.898 --> 00:32:20.527
그 교과 선생께서
기록을 하는 겁니다.

00:32:20.627 --> 00:32:26.016
여러분이 아무리 잘나도
그 교과 선생님과 소통하지 않으면

00:32:26.116 --> 00:32:30.919
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교과세특에
투영할 수가 없게 돼요.

00:32:31.019 --> 00:32:32.508
이 점 기억해주시고요.

00:32:32.608 --> 00:32:36.741
교과세특 자체는 여러분이 가지고
있는 교과에 대한 관심도와

00:32:36.841 --> 00:32:38.731
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

00:32:38.831 --> 00:32:42.761
그리고 이 교과세특은 수업 중에
이루어진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만,

00:32:42.861 --> 00:32:47.265
수업 외 이루어졌던 모든
교내 활동과도 연결이 돼요.

00:32:47.365 --> 00:32:52.007
왜냐하면 수업 밖,
교내 경시대회라든가

00:32:52.071 --> 00:32:56.499
혹은 보고서 대회, 독서와 같은
활동들을 수업 시간으로 갖고 와서

00:32:56.560 --> 00:32:58.966
발표를 한다든가 보고서를
제출하게 되면

00:32:59.066 --> 00:33:01.964
충분히 교과세특에
기재가 가능합니다.

00:33:02.064 --> 00:33:04.008

가장 중요한 거,
뭐를 해야 될까요?

00:33:04.108 --> 00:33:06.745

수업 시간에 여러분을
드러내셔야 됩니다.

00:33:06.845 --> 00:33:10.992

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
100% 발휘를 하셔야 돼요.

00:33:11.092 --> 00:33:15.310

그리고 발휘되는 모습을
교과 선생님이 알 수 있게끔

00:33:15.410 --> 00:33:18.818

어필해야 됩니다,
굉장히 중요해요.

00:33:18.918 --> 00:33:24.640

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, 특히
전공과 관련이 있는 교과의 경우

00:33:24.740 --> 00:33:26.884

선생님과 소통을 잘 하셔야 돼요.

00:33:26.984 --> 00:33:29.846

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과
친해져야 됩니다.

00:33:29.946 --> 00:33:34.679

그런데 친해지라는 게 인간 대
인간으로 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.

00:33:34.779 --> 00:33:38.334

간혹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
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,

00:33:38.434 --> 00:33:43.313

절대 선생님 앞에서 잘 보이고
아부하라는 게 아닙니다.

00:33:43.413 --> 00:33:48.064

기본적인 수업에 있어서 수업 내에서
선생님과 친해지라는 겁니다.

00:33:48.164 --> 00:33:52.781

선생님과 학생이 친해지기 위해서
가장 기본적인 게 뭐니까?

00:33:52.881 --> 00:33:57.986

바로 선생님이 열심히 하시는 수업의
내용을 잘 따라 가는 거예요.

00:33:58.086 --> 00:34:02.877

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
빠뜨리지 않고 열중하는 겁니다.

00:34:02.977 --> 00:34:06.472

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의

내용에 집중하는 거예요.

00:34:06.572 --> 00:34:09.916

간혹 보면, 다른 과목 공부하는 친구도 있습니다.

00:34:10.016 --> 00:34:13.030

그 친구는 절대로 좋은 교과세특을 받을 수 없어요.

00:34:13.130 --> 00:34:17.180

오히려 교과세특에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.

00:34:17.280 --> 00:34:19.651

그러면 선생님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던지시잖아요.

00:34:19.751 --> 00:34:21.971

요즘 친구들 대답 정말로 안 합니다.

00:34:22.071 --> 00:34:25.094

그런데 그 안 하는 분위기 속에 대답을 하잖아요?

00:34:25.194 --> 00:34:26.383

뭐가 생깁니까?

00:34:26.483 --> 00:34:28.314

여러분의 적극성이 어필되고.

00:34:28.414 --> 00:34:33.827

재는 정말 대답을 잘 한다, 여러분의 성적과 상관없이

00:34:33.927 --> 00:34:36.422

선생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하게 될 거고요.

00:34:36.522 --> 00:34:39.855

여러분 하나하나의 모습을 관찰하실 겁니다.

00:34:39.955 --> 00:34:43.183

그리고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점을 끄집어내서

00:34:43.283 --> 00:34:47.996

그 내용을 교과세특에 기재를 해주실 겁니다.

00:34:48.096 --> 00:34:50.112

수업 시간에 굉장히 활동 많이 합니다.

00:34:50.212 --> 00:34:52.980

강의식 수업을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.

00:34:53.080 --> 00:34:55.577

왜냐하면 교과세특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.

00:34:55.677 --> 00:34:57.715

그래서 하나하나 다
끄집어내기 위해서는

00:34:57.815 --> 00:35:00.067

활동 중심의 수업을 많이 하세요.

00:35:00.167 --> 00:35:02.498

이런 활동, 적극적으로
참여하셔야 됩니다.

00:35:02.598 --> 00:35:05.653

조별 활동 하잖아요?
조장하세요.

00:35:05.753 --> 00:35:07.919

조장하기 힘들면 보조
자료 만드세요.

00:35:08.019 --> 00:35:11.376

능동적으로 조별 활동을
이끌어 나가셔야 됩니다.

00:35:11.476 --> 00:35:14.517

그리고 선생님이 좋아하는
친구 중에 하나.

00:35:14.617 --> 00:35:17.302

바로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입니다.

00:35:17.402 --> 00:35:18.834

질문을 활용하세요.

00:35:18.934 --> 00:35:25.087

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수업
중에 가졌던 의문점, 궁금증.

00:35:25.187 --> 00:35:29.192

바로 그 자리에서 선생님을
통해 해결하기 바랍니다.

00:35:29.292 --> 00:35:32.294

수행 평가, 정말로 많습니다.

00:35:32.394 --> 00:35:36.401

예비 고1 친구들,
중학교 때 수행평가 많이 하셨죠?

00:35:36.501 --> 00:35:40.280

고등학교 때 수행평가는
중학교 때 수행평가와는

00:35:40.380 --> 00:35:43.909

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
정말로 힘듭니다.

00:35:44.009 --> 00:35:48.190

일단 한 과목의 수행평가가 기본적으로

2개, 3개 이루어져요.

00:35:48.290 --> 00:35:51.430

그리고 고등학교는
교과목이 많습니다.

00:35:51.530 --> 00:35:56.729

합치면 한 학기의 수행평가 횟수가
20회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

00:35:56.829 --> 00:35:59.771

다르게 이야기하면 수행평가가 뭐죠?

00:35:59.871 --> 00:36:03.034

수업 시간 내에서 학생을
평가하겠다는 겁니다.

00:36:03.134 --> 00:36:05.109

그리고 활동 관련
수행 평가가 많아요.

00:36:05.209 --> 00:36:08.875

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면목을
드러낼 수 있는 거죠.

00:36:08.975 --> 00:36:11.193

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입니다.

00:36:11.293 --> 00:36:13.697

그런데 이 학생은
수업 태도가 좋아요.

00:36:13.797 --> 00:36:15.838

그런데 너무 자기가 소극적이예요.

00:36:15.938 --> 00:36:17.779

생각보다 두드러지게
하지 못했습니다.

00:36:17.879 --> 00:36:22.432

그런데 이 학생이 수행평가
준비를 완벽하게 했어요.

00:36:22.532 --> 00:36:24.316

그럴 경우에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?

00:36:24.416 --> 00:36:29.591

이 학생에게 보지 못했던 새로운
점을 수행평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.

00:36:29.691 --> 00:36:31.224

그리고 마지막.

00:36:31.324 --> 00:36:34.323

멘토 교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.

00:36:34.423 --> 00:36:37.294

왜냐하면 일단 여러분이
학교 생활을 할 때

00:36:37.394 --> 00:36:41.447

누군가에게 자기의 고민을
털어놓을 상대가 필요하잖아요.

00:36:41.547 --> 00:36:43.820
선생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.

00:36:43.920 --> 00:36:45.445
멘토 교사를 만드세요.

00:36:45.545 --> 00:36:47.812
그 멘토 교사가 좋은 점이 뭐냐면,

00:36:47.912 --> 00:36:51.463
나중에 여러분이 3학년 때
학종을 쓰는데 그 전형.

00:36:51.563 --> 00:36:56.179
그 대학에서 교사 추천서를
요구할 수도 있습니다.

00:36:56.279 --> 00:37:01.412
그때 많은 친구들은 고3 담임
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부탁하는데,

00:37:01.512 --> 00:37:03.575
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.

00:37:03.675 --> 00:37:08.240
웬만하면 고3 선생님한테
추천서를 부탁하지 마세요.

00:37:08.340 --> 00:37:11.486
고3 선생님들은 여러분에
대해서 생각보다 많은 거를

00:37:11.586 --> 00:37:13.414
알고 계시지 못합니다.

00:37:13.514 --> 00:37:18.024
기껏해야 6개월 정도
여러분을 봤을 뿐이에요.

00:37:18.124 --> 00:37:22.700
여러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은
점들을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.

00:37:22.800 --> 00:37:26.061
더군다나 고3 담임
선생님은 추천서,

00:37:26.161 --> 00:37:30.192
자기가 부탁 받은 추천서가
정말로 많아요.

00:37:30.292 --> 00:37:35.801
많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에게
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

00:37:35.901 --> 00:37:39.617
추천서에 투입할 수가
없는 분들입니다.

00:37:39.717 --> 00:37:42.682
대신에 여러분이 멘토
교사를 만들었잖아요?

00:37:42.782 --> 00:37:44.629
그분께 부탁드립니다.

00:37:44.729 --> 00:37:48.218
그분이 고3 담임이 아니라면
충분히 시간적 여유도 있습니다.

00:37:48.318 --> 00:37:50.675
여러분에 대해서 속속들이
알고 있기 때문에,

00:37:50.775 --> 00:37:53.836
여러분에 대한 진솔한,
그리고 진정성이 느껴지는

00:37:53.936 --> 00:37:56.282
추천서를 써주게 될 겁니다.

00:37:56.382 --> 00:37:59.587
이런 식으로 선생님과
소통을 하게 되면

00:37:59.687 --> 00:38:04.415
여러분의 교과세특은 분명히
차별성을 갖게 될 거예요.

00:38:04.515 --> 00:38:07.489
선생님이 여러분에 대해서
특혜를 베풀 게 아니죠.

00:38:07.589 --> 00:38:11.454
여러분이 노력을 하게 돼서 눈에
띄고 자기 어필을 한 겁니다.

00:38:11.554 --> 00:38:15.358
자기 어필을 해서 통한 거예요.

00:38:15.458 --> 00:38:17.176
이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.

00:38:17.276 --> 00:38:19.194
발표를 활용하자입니다.

00:38:19.294 --> 00:38:22.605
요즘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
교과세특을 적기 위해서

00:38:22.705 --> 00:38:23.796
발표를 많이 시킵니다.

00:38:23.896 --> 00:38:26.817
그리고 이 발표는
선생님이 시키지 않더라도

00:38:26.917 --> 00:38:29.445
능동적으로 가서 발표를

적극적으로 해야 돼요.

00:38:29.545 --> 00:38:34.813

학중에 지원한 친구들은
교내에 굉장히 많은 대회나

00:38:34.913 --> 00:38:37.448

그리고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.

00:38:37.548 --> 00:38:41.804

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
기재되기는 하지만 아깝죠.

00:38:41.904 --> 00:38:43.239

그러면 뭐로 하면 될까요?

00:38:43.339 --> 00:38:47.942

참여했다는 내용 자체가 교과세특에
적히면 더 좋잖아요.

00:38:48.042 --> 00:38:50.613

왜냐하면 학생부 내에서
가장 중요한 항목이

00:38:50.713 --> 00:38:51.920

교과세특이기 때문에 그렇죠.

00:38:52.020 --> 00:38:57.214

교과세특에도 활동 내용을 언급하면
좀 더 플러스 알파가 있겠죠.

00:38:57.314 --> 00:39:00.867

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
모든 교내 활동에 대해서

00:39:00.967 --> 00:39:02.524

발표하도록 노력을 하세요.

00:39:02.624 --> 00:39:06.084

특히 활동과 연관 있는 교과 말입니다.

00:39:06.184 --> 00:39:09.203

그런 발표를 마다할
선생님은 없습니다.

00:39:09.303 --> 00:39:13.234

물론 발표하기 전에는 반드시
선생님과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.

00:39:13.334 --> 00:39:16.291

그날 가서 발표하겠다?
안 해줘요.

00:39:16.391 --> 00:39:19.351

발표하기 몇 주 전,
한 달 전에 미리 가서

00:39:19.451 --> 00:39:23.559

선생님, 저 이러한 활동을 했는데
친구들한테 발표해보고 싶어요.

00:39:23.659 --> 00:39:28.443
그러면 교과세특을 써줘야 되는
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?

00:39:28.543 --> 00:39:29.795
하라고 하십니다.

00:39:29.895 --> 00:39:33.600
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
발표는 오픈되어있어요.

00:39:33.700 --> 00:39:36.523
항상 여러분이 발표하고
싶은 내용이 있으면,

00:39:36.623 --> 00:39:39.946
무조건 선생님한테 가서 먼저
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.

00:39:40.046 --> 00:39:44.530
발표 같은 경우에는
이렇게 말로 하지만,

00:39:44.630 --> 00:39:47.286
보통 파워포인트를 많이
쓰죠, 선생님처럼.

00:39:47.386 --> 00:39:51.144
그리고 굳이 발표가 아니더라도
수행평가와 관련된 발표도 많아요.

00:39:51.244 --> 00:39:54.751
이럴 경우에는 굉장히
말의 언변이 뛰어나거나

00:39:54.851 --> 00:39:58.297
자료 조사를 정말로 철저하게
한 학생이 아니라면,

00:39:58.397 --> 00:39:59.530
대부분의 학생이 속해요.

00:39:59.630 --> 00:40:01.830
철저하게 하지 않고
언변 능하지 않습니다.

00:40:01.930 --> 00:40:05.452
이런 친구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
포장이라도 잘해줘야 돼요.

00:40:05.552 --> 00:40:09.573
그리고 기본적인 프레젠테이션
기술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.

00:40:09.673 --> 00:40:11.703
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
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

00:40:11.803 --> 00:40:14.638
파워포인트라든가 프레지
같은 프로그램을

00:40:14.738 --> 00:40:16.414
열심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.

00:40:16.514 --> 00:40:18.228
유튜브 같은 데 보면
금방 배우거든요.

00:40:18.328 --> 00:40:19.855
생각보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,

00:40:19.955 --> 00:40:23.733
이런 프레젠테이션 관련 프로그램을
사용하는 법 정도는

00:40:23.833 --> 00:40:29.040
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
스킬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.

00:40:29.140 --> 00:40:32.481
그리고 발표를 만약에 했어요.

00:40:32.581 --> 00:40:34.795
아깝잖아요.
그러면 뭐 하면 돼요?

00:40:34.895 --> 00:40:40.052
발표한 내용을 교실
게시판에 게시하세요.

00:40:40.152 --> 00:40:43.131
게시할 경우에는 누구한테
말하면 될까요?

00:40:43.231 --> 00:40:46.948
담임 선생님한테 말하면 그
내용이 어디에 들어갈까요?

00:40:47.048 --> 00:40:49.737
담임 선생님이 써주는 자율 활동이나

00:40:49.837 --> 00:40:53.819
개인 세부 특기 능력 사항에
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.

00:40:53.919 --> 00:40:55.893
활동 하나 했는데 활동 적히죠?

00:40:55.993 --> 00:40:58.433
발표하면 교과세특에 적히죠?

00:40:58.533 --> 00:41:03.517
교실에 게시하면 자율
활동이나 개인세특에 적혀요.

00:41:03.617 --> 00:41:05.519
일타삼피입니다.

00:41:05.619 --> 00:41:08.233
돌 하나 던졌더니 새가
세 마리가 잡히는,

00:41:08.333 --> 00:41:11.377
이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

00:41:11.477 --> 00:41:15.208
특히 발표는 아무 때나
한다고 해서 허용해줄까요?

00:41:15.308 --> 00:41:18.499
평상시에는 진도 나가기 바쁘신데요?
아닙니다.

00:41:18.599 --> 00:41:22.749
그런데 여러분 학사 일정을
보면, 빈 공간이 있습니다.

00:41:22.849 --> 00:41:25.977
선생님이 수업을 못할 때가 있어요.

00:41:26.077 --> 00:41:27.887
수업이라는 게 하기
힘들 때가 있습니다.

00:41:27.987 --> 00:41:30.643
대부분 시험이 끝난 다음이죠.

00:41:30.743 --> 00:41:32.942
특히 중간고사보다는 기말고사.

00:41:33.042 --> 00:41:36.007
특히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
끝나고 방학하기 전까지

00:41:36.107 --> 00:41:38.035
2주 정도의 시간이 남습니다.

00:41:38.135 --> 00:41:39.881
거의 진도를 나가지 않으세요.

00:41:39.981 --> 00:41:42.842
특히 2학기 같은 경우에는
진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.

00:41:42.942 --> 00:41:45.263
끝났기 때문에 거의
그 2주 동안에는

00:41:45.363 --> 00:41:48.784
독서라든가 동영상 시청이라든가
이런 활동을 하거든요.

00:41:48.884 --> 00:41:51.192
그 시간에 발표 활동을 하세요.

00:41:51.292 --> 00:41:52.880
발표를 한다고 하잖아요?

00:41:52.980 --> 00:41:56.534
아마 그 교과 선생님이
오히려 기뻐하실 겁니다.

00:41:56.634 --> 00:41:59.353
경시 대회 내용입니다.

00:41:59.453 --> 00:42:03.331
교내 대회인데요, 교내 대회는
제가 앞에서 언급했습니다.

00:42:03.431 --> 00:42:07.519
수상을 하지 못하면 경시
대회와 관련된 내용이

00:42:07.619 --> 00:42:08.777
학생부에 기재될 수가 없어요.

00:42:08.877 --> 00:42:15.383
참가 사실조차 학생부에 기재될 수가
없는 게 기재 원칙입니다.

00:42:15.483 --> 00:42:17.710
기재 원칙은 뭐예요?

00:42:17.810 --> 00:42:19.999
둘러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
00:42:20.099 --> 00:42:22.076
학교 선생님들은 알고 있어요.

00:42:22.176 --> 00:42:25.064
교내 대회에 참가한 사실을
원칙적으로 쓰지 못하지만,

00:42:25.164 --> 00:42:29.468
대회라는 명칭을 빼버리고 단어를
바꿔서 쓸 수 있거든요.

00:42:29.568 --> 00:42:31.079
그런데 모든 학생이 할 수 없으니까

00:42:31.179 --> 00:42:33.394
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
학생만 기재해줍니다.

00:42:33.494 --> 00:42:35.474
그래서 자기가 교내
대회 참가했잖아요?

00:42:35.574 --> 00:42:36.902
그런데 참가했던 사실을
너무 알리고 싶어요.

00:42:37.002 --> 00:42:37.912
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

00:42:38.012 --> 00:42:41.689
우회해서 참가하게 된 동기라든가
과정을 발표하게 되면,

00:42:41.789 --> 00:42:46.730
아마 담임 선생님이나 교과
선생님은 대회라는 명칭을 빼고

00:42:46.830 --> 00:42:50.930
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회
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

00:42:51.030 --> 00:42:54.929
남이 읽었을 때 애는 대회
참가했구나, 라는 것을

00:42:55.029 --> 00:42:58.297
암시해줄 수 있는 내용을
써줄 수는 있습니다, 우회해서.

00:42:58.397 --> 00:43:00.005
절대적으로 써주는 거는 아니에요.

00:43:00.105 --> 00:43:01.357
선생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,

00:43:01.457 --> 00:43:04.193
정말로 여러분을 위한
선생님이라면 써줄 것입니다.

00:43:04.293 --> 00:43:07.614
그래서 교내 대회의 내용이라도
발표를 하게 되면

00:43:07.714 --> 00:43:10.200
적힐 수도 있어요,
안 될 수도 있지만.

00:43:10.300 --> 00:43:12.084
그다음에 교외 활동입니다.

00:43:12.184 --> 00:43:14.854
교외 활동도 마찬가지로 봉사를
제외한 모든 교외 활동은

00:43:14.954 --> 00:43:18.587
학생부에 기재가 되지
않아요, 이게 원칙입니다.

00:43:18.687 --> 00:43:23.264
그런데 교외 활동
자체는 교내 활동과는

00:43:23.364 --> 00:43:27.583
질적 차이가 비교할 수 없을
정도로 높은 활동이 많습니다.

00:43:27.683 --> 00:43:31.901
왜냐하면 나라에서 하는 활동이라도
교외 활동이기 때문에,

00:43:32.001 --> 00:43:33.171
기재가 안 돼요.

00:43:33.271 --> 00:43:37.133
그런데 그 질이 어떤 활동보다

00:43:37.233 --> 00:43:40.441
시라든가 다른 외부 단체가

한 활동이 높아요.

00:43:40.541 --> 00:43:44.653

교내에서 맛볼 수 없었던 질적
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.

00:43:44.753 --> 00:43:48.296

문제는 정말로 순도가 높은 활동이고

00:43:48.396 --> 00:43:52.990

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
내가 진학할 학과와

00:43:53.090 --> 00:43:55.337

정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인데,

00:43:55.437 --> 00:43:59.666

교외 활동이라는 이유 때문에
학생부 기재가 안 되잖아요.

00:43:59.766 --> 00:44:01.071

너무 아깝잖아요.

00:44:01.171 --> 00:44:03.618

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어요,
너무 아깝기 때문에

00:44:03.718 --> 00:44:05.874

교외 대회에 참가를
많이 안 합니다.

00:44:05.974 --> 00:44:07.408

교외 대회 활동을 잘 안 해요.

00:44:07.508 --> 00:44:08.585

하지만 하셔야 합니다.

00:44:08.685 --> 00:44:11.308

왜냐하면 정말 질적인
차이가 너무 커요.

00:44:11.408 --> 00:44:15.225

학교에서 섭외할 수 없는
분들이 나와서 특강도 해주고

00:44:15.325 --> 00:44:18.062

학교에서 할 수 없는 실험도
밖에서 할 수 있어요.

00:44:18.162 --> 00:44:19.148

하셔야 돼요.

00:44:19.248 --> 00:44:22.694

하시되, 학생부에 기재를
해야 되잖아요?

00:44:22.794 --> 00:44:25.698

뭐를 하면 돼요?
교내 활동화시키면 됩니다.

00:44:25.798 --> 00:44:28.446

제가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하게 될

00:44:28.546 --> 00:44:30.648

창의적 체험 활동에서
이야기를 할 건데요.

00:44:30.748 --> 00:44:34.043

그 방법 중에 하나가 교외
활동을 한 거를 가지고

00:44:34.143 --> 00:44:37.289

수업 시간이라든가 담임 시간에
발표를 하시면 됩니다.

00:44:37.389 --> 00:44:40.996

하시면 선생님께서는 그
교외 활동에 대해서,

00:44:41.096 --> 00:44:44.468

직접적인 명칭을 쓰지는
않지만 우회해서,

00:44:44.568 --> 00:44:50.066

이 학생이 밖에서 이런 활동을
했다는 거를 써줄 가능성이 높아요.

00:44:50.166 --> 00:44:52.167

이 점도 여러분이 기억해주시고요.

00:44:52.267 --> 00:44:56.180

독서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
시간에 발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.

00:44:56.280 --> 00:45:00.940

왜냐하면 독서 활동이
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.

00:45:01.040 --> 00:45:03.336

지금은 독서 내용도
들어갈 수 있는데,

00:45:03.436 --> 00:45:09.426

일단 내년도 기재 요령이
발표된 거에 따르면,

00:45:09.526 --> 00:45:14.913

독서는 책의 이름하고 저자명만
들어가기로 바뀔 겁니다.

00:45:15.013 --> 00:45:18.022

물론 이 내용이 논란이 많기
때문에 확정은 안 됐어요.

00:45:18.122 --> 00:45:22.674

여러분이 이 강의를
2017년도 여름이라든가

00:45:22.774 --> 00:45:25.193

봄 이후에 듣게 되면
확정됐을 텐데,

00:45:25.293 --> 00:45:29.574

현재까지는 도서의 내용은
기재가 안 됩니다.

00:45:29.674 --> 00:45:32.016

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아깝잖아요.

00:45:32.116 --> 00:45:35.643

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과
저자만 들어간다면

00:45:35.743 --> 00:45:39.133

내가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
배웠는지 드러낼 길이 없어요.

00:45:39.233 --> 00:45:42.837

이거를 발표를 통해서 드러내세요.

00:45:42.937 --> 00:45:47.140

그러면 교과세특에 또 우회해서
써줄 수가 있습니다.

00:45:47.240 --> 00:45:48.737

그래서 이런 내용을 쓰면,

00:45:48.837 --> 00:45:50.983

독서 항목 내에서는 알 수 없지만

00:45:51.083 --> 00:45:54.389

다른 항목을 통해서
이 학생이 이 책을 읽어서

00:45:54.489 --> 00:45:56.034

이러한 점을 느끼고 배웠구나,

00:45:56.134 --> 00:45:59.089

독서 활동을 통해서 다른
활동에 복제가 됐구나.

00:45:59.189 --> 00:46:02.141

이러한 점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.

00:46:02.241 --> 00:46:05.547

발표라는 자체가 굉장히 유용해요.

00:46:05.647 --> 00:46:07.967

여러분이 조금 더
능동적으로만 움직이면

00:46:08.067 --> 00:46:10.421

굉장히 많은 내용이 교과세특이라든가

00:46:10.521 --> 00:46:12.514

다른 학생부에 기재가 될 수 있고요.

00:46:12.614 --> 00:46:13.963

이게 바로 뭐니까?

00:46:14.063 --> 00:46:17.352

남들과 다른 학생부
기재에 첫걸음이에요.

00:46:17.452 --> 00:46:19.011
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겁니다.

00:46:19.111 --> 00:46:21.568
여러분, 노력하지 않고
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

00:46:21.668 --> 00:46:26.065
차별화되지 않고 남들과 똑같은
학생부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.

00:46:26.165 --> 00:46:28.203
조별 활동의 팁을 드릴게요.

00:46:28.303 --> 00:46:31.753
일단 기본적으로 조장을
하는 게 좋습니다.

00:46:31.853 --> 00:46:35.036
그런데 조장은 약간
튀어야 되잖아요.

00:46:35.136 --> 00:46:37.757
약간 튀는 거 싫어하는
친구들은 팁을 더 드릴게요.

00:46:37.857 --> 00:46:40.679
보조자료를 만드세요.

00:46:40.779 --> 00:46:44.005
팀원들을 위해서 영어라고 하면,

00:46:44.105 --> 00:46:46.464
영어 지문에 대한 요약을 쓴다든가

00:46:46.564 --> 00:46:48.907
단어, 혹은 예상 문제를
만들어서 나눠주세요.

00:46:49.007 --> 00:46:53.992
나눠주시되, 그 보조 자료에
여러분이 만들었다고 하는

00:46:54.092 --> 00:46:55.992
근거를 남기셔야겠죠.

00:46:56.092 --> 00:46:58.311
여러분의 이름을 박아두세요.

00:46:58.411 --> 00:47:00.022
그리고 수업 시간에 나눠주세요.

00:47:00.122 --> 00:47:02.492
그 나눠주는 방법, 나눠주는 모습을

00:47:02.592 --> 00:47:05.435
교과 선생님이 알 수
있게끔 하면 됩니다.

00:47:05.535 --> 00:47:08.271

교과 선생님이 그거를 보시고
이거 누가 만들었어?

00:47:08.371 --> 00:47:10.527
애가 만들었어?
기억하실 거고요.

00:47:10.627 --> 00:47:15.203
그 내용을 교과세특에
기록해주실 겁니다.

00:47:15.303 --> 00:47:18.759
그리고 모든 조별 활동,
침묵은 절대 안 됩니다.

00:47:18.859 --> 00:47:22.097
침묵은 금이지만 학중에서는
침묵이 금이 아니에요.

00:47:22.197 --> 00:47:23.465
침묵은 엑스입니다.

00:47:23.565 --> 00:47:26.231
학중 시대에 가장
필요한 거는 말이에요.

00:47:26.331 --> 00:47:27.643
말을 하셔야 됩니다.

00:47:27.743 --> 00:47:30.542
수업과 관련된 말을
많이 하셔야 돼요.

00:47:30.642 --> 00:47:32.904
조별 활동 팁, 제가 드렸습니다.

00:47:33.004 --> 00:47:35.831
굉장히 유용한 팁이
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

00:47:35.931 --> 00:47:38.702
수행평가,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47:38.802 --> 00:47:39.792
제가 이야기 했었죠?

00:47:39.892 --> 00:47:43.533
고등학교에서의 수행평가는
중학교에서의 수행평가와는

00:47:43.633 --> 00:47:46.438
질적으로 다릅니다,
횟수도 많고 어려워요.

00:47:46.538 --> 00:47:51.870
그리고 문제는 수행평가의 비중이
매해 증가되고 있습니다.

00:47:51.970 --> 00:47:54.633
어떤 과목의 경우는 수행평가 비중이

00:47:54.733 --> 00:47:56.734
정기고사보다 큰 경우도 많아요.

00:47:56.834 --> 00:48:01.150
그래서 거의 수행평가의
비중은 중간, 기말이라는

00:48:01.250 --> 00:48:05.143
정기고사급으로 올라갔어요,
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.

00:48:05.243 --> 00:48:06.889
그 비중이 상당히 큼니다.

00:48:06.989 --> 00:48:11.919
대신에 수행평가 자체가 과정 관련
수행평가이기 때문에

00:48:12.019 --> 00:48:14.362
여러분이 수업 중에 잘
드러나지 않았던 것을

00:48:14.462 --> 00:48:16.343
드러낼 수가 있어요,
그 활동을 통해서.

00:48:16.443 --> 00:48:18.685
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에
어떻게 참여하게 되고

00:48:18.785 --> 00:48:24.028
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지 과정을
교과세특에 적어놓을 수가 있습니다.

00:48:24.128 --> 00:48:30.330
그리고 수행평가가 교과에 어떤
활동보다 확장 가능성이 커요.

00:48:30.430 --> 00:48:34.331
수행평가를 하잖아요?

00:48:34.431 --> 00:48:39.661
보통 발표도 많이 하고 보고서도
만드는 활동이 많습니다.

00:48:39.761 --> 00:48:42.527
이거를 가지고 확장시킬 수
있는 거예요.

00:48:42.627 --> 00:48:44.144
탐구 보고서 만들 수 있습니다.

00:48:44.244 --> 00:48:45.796
소논문 만들 수도 있어요.

00:48:45.896 --> 00:48:47.805
그리고 발표 활동할 수도 있고요.

00:48:47.905 --> 00:48:49.923
심화 독서까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.

00:48:50.023 --> 00:48:52.612
수행평가가 확장성이 굉장히 커요.

00:48:52.712 --> 00:48:56.491
크기 때문에 수행평가 하나를
보더라도 놓치지 마시고요.

00:48:56.591 --> 00:48:59.384
이 수행평가 내용 자체가
호기심있는 내용이에요.

00:48:59.484 --> 00:49:02.343
여러분이 지원할 학과와
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.

00:49:02.443 --> 00:49:04.760
그러면 이것을 확장시키고자
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.

00:49:04.860 --> 00:49:08.949
수행평가 자체가 성적도 성적이지만

00:49:09.049 --> 00:49:11.029
여러분의 스펙이라든가
교내 활동의 질을

00:49:11.129 --> 00:49:14.097
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
기폭제가 됩니다.

00:49:14.197 --> 00:49:15.433
이 점 꼭 기억해주시고요.

00:49:15.533 --> 00:49:18.161
참고로 수행평가는
기본 점수가 있어요.

00:49:18.261 --> 00:49:20.823
수행평가는 여러분을 평가하기
위해서 만든 거지만

00:49:20.923 --> 00:49:22.588
정기고사는 편차가 크잖아요.

00:49:22.688 --> 00:49:24.953
0점이 있을 수 있고 100점이
있을 수도 있습니다.

00:49:25.053 --> 00:49:30.981
그런데 수행평가 자체는 정기고사의
편차를 줄이기 위해서

00:49:31.081 --> 00:49:33.362
기본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.

00:49:33.462 --> 00:49:37.281
그리고 수행평가 구간 별
점수 차이가 적습니다.

00:49:37.381 --> 00:49:40.433
그래서 조금만 노력하면

충분히 수행평가에서

00:49:40.533 --> 00:49:42.445

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.

00:49:42.545 --> 00:49:44.509

기본 점수가 무조건 존재하기 때문에

00:49:44.609 --> 00:49:48.632

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
시험이라는 거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.

00:49:48.732 --> 00:49:51.307

수행평가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.

00:49:51.407 --> 00:49:52.948

왜냐하면 너무 많습니다.

00:49:53.048 --> 00:49:56.818

그리고 문제는 A라는 과목의
수행평가가 3개 있어요.

00:49:56.918 --> 00:49:59.394

그런데 수행평가를 A라는
과목만 보지 않죠.

00:49:59.494 --> 00:50:02.344

B라는 과목, C라는 과목,
D라는 과목이 다 봐요.

00:50:02.444 --> 00:50:05.666

문제는 수행평가 시기가 겹칩니다.

00:50:05.766 --> 00:50:08.832

심한 경우에는 그날 내내
수행평가만 보는 경우도 있어요.

00:50:08.932 --> 00:50:11.207

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
준비하시는 게 좋아요.

00:50:11.307 --> 00:50:13.365

특히 시험 관련이나
단원 평가라든가,

00:50:13.465 --> 00:50:17.503

테스트 형식의 평가가 아니라면
보고서 만드는 거 있죠?

00:50:17.603 --> 00:50:20.987

이런 활동이라면 미리미리
차근차근 해두는 게,

00:50:21.087 --> 00:50:23.537

또 수행평가 질을 높일 수도 있고요.

00:50:23.637 --> 00:50:27.785

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기록을
한 이유가 생깁니다.

00:50:27.885 --> 00:50:30.971

이 과정 속에서 확장의
여지도 주게 돼요.

00:50:31.071 --> 00:50:32.282
굉장히 중요합니다.

00:50:32.382 --> 00:50:35.566
그래서 수행평가를 할 때
과정이 필요한 수행평가,

00:50:35.666 --> 00:50:37.029
기간이 있는 수행평가입니다.

00:50:37.129 --> 00:50:39.531
이때 반드시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.

00:50:39.631 --> 00:50:44.142
기록을 남기면 과세특을
위해 제출한 보고서라든가

00:50:44.242 --> 00:50:47.261
나중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

00:50:47.361 --> 00:50:50.594
굉장히 유용한 자료 중에
하나가 되기도 합니다.

00:50:50.694 --> 00:50:52.698
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

00:50:52.798 --> 00:51:00.477
교과와 교과세특, 교과를 크게
봤을 때 지탱하는 양대축입니다.

00:51:00.577 --> 00:51:04.013
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
더 추가가 돼요.

00:51:04.113 --> 00:51:07.033
바로 교내 대회입니다.

00:51:07.133 --> 00:51:11.459
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봤을 때
교과, 교과세특, 교내 대회를

00:51:11.559 --> 00:51:14.629
하나의 커다란 교과로
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

00:51:14.729 --> 00:51:18.071
교과라는 거는 보통 내신이죠.

00:51:18.171 --> 00:51:20.538
수업에서의 기록물, 교과세특.

00:51:20.638 --> 00:51:24.923
그리고 수업 바깥이지만 학업 능력을
측정할 수 있는 교내 대회.

00:51:25.023 --> 00:51:26.627
이 세 가지를 뭐로 보느냐?

00:51:26.727 --> 00:51:29.367

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
학업 역량을 측정하는

00:51:29.467 --> 00:51:31.887

교과의 한 요소로 보게 됩니다.

00:51:31.987 --> 00:51:33.968

교내 대회 이야기를 할게요.

00:51:34.068 --> 00:51:35.780

수상실적입니다.

00:51:35.880 --> 00:51:38.246

수상실적, 중요합니다.

00:51:38.346 --> 00:51:42.276

왜냐하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
학업 역량을 나타내요.

00:51:42.376 --> 00:51:46.361

만약에 내신 성적이 A라는
학생이 더 좋아요.

00:51:46.461 --> 00:51:49.320

B라는 학생은 조금 적습니다,
차이는 많이 안 나요.

00:51:49.420 --> 00:51:52.379

A라는 학생이 1.5고
B라는 학생이 2.0이에요.

00:51:52.479 --> 00:51:56.323

그런데 교과, 전공
관련 수업과 비교했을 때

00:51:56.423 --> 00:51:58.021

A라는 학생은 좀 적어요.

00:51:58.121 --> 00:51:59.823

B라는 학생은 수상실적이 많아요?

00:51:59.923 --> 00:52:02.781

그러면 오히려 내신
성적은 조금 낮지만

00:52:02.881 --> 00:52:05.691

이 학생에 대해서 좀 더 좋은
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.

00:52:05.791 --> 00:52:07.570

그만큼 교과와 관련된,

00:52:07.670 --> 00:52:11.216

특히 전공과 관련된 수상
실적은 중요합니다.

00:52:11.316 --> 00:52:17.172

하지만 양이 중요하냐?
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아요.

00:52:17.272 --> 00:52:21.810

수상을 100개 탄 친구가
상을 20개 탄 친구보다

00:52:21.910 --> 00:52:24.682

무조건 붙을 확률이
높은 거는 아니에요.

00:52:24.782 --> 00:52:27.161

오히려 질적인 면으로 봤을 때,

00:52:27.261 --> 00:52:31.197

20개 받은 친구의 질이
높으면 20개를 받은 학생이

00:52:31.297 --> 00:52:33.636

더 우수한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.

00:52:33.736 --> 00:52:39.513

대신에 양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
바로 전공 관련 수상입니다.

00:52:39.613 --> 00:52:43.441

물론 전공 관련 수상은
상의 종류도 중요해요.

00:52:43.541 --> 00:52:47.979

중요하지만 이 학생이
전공과 관련된 대회에서

00:52:48.079 --> 00:52:51.586

얼마큼의 실적을
걸었느냐는 것도 중요합니다.

00:52:51.686 --> 00:52:54.867

특히 이공계의 경우는 많이 봅니다.

00:52:54.967 --> 00:52:56.323

물론 문과도 보기는 해요.

00:52:56.423 --> 00:52:59.699

하지만 이공계는
정성평가이기는 하지만,

00:52:59.799 --> 00:53:02.549

정량적인 게 문과보다 많이
많다고 보시면 돼요.

00:53:02.649 --> 00:53:05.665

특히 이공계 같은
경우에는 교과와 관련된,

00:53:05.765 --> 00:53:09.935

특히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
교내 대회 수상은 중요합니다.

00:53:10.035 --> 00:53:14.353

그래서 이 수상은 결과예요.

00:53:14.453 --> 00:53:20.430

문제는 학생부에는 교내 대회와
관련해서는 결과만 기재되어 있어요.

00:53:20.530 --> 00:53:22.075
또 상을 타야 됩니다.

00:53:22.175 --> 00:53:26.921
상을 타지 못하면 원칙적으로
그 교내 대회에 대한 내용은

00:53:27.021 --> 00:53:30.426
학생부에 적히지 못합니다.

00:53:30.526 --> 00:53:33.974
이상하죠? 굉장히 과정을
중시여기는 학종인데,

00:53:34.074 --> 00:53:40.498
나라에서는 교내 대회와 관련된
과정은 기재하지 말라고 합니다.

00:53:40.598 --> 00:53:43.270
하지만 여러분의 선생님은
또 누구입니까?

00:53:43.370 --> 00:53:48.359
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게끔
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.

00:53:48.459 --> 00:53:53.880
분명히 여러분의 선생님들은
이 억제책을 돌아갈 수 있는,

00:53:53.980 --> 00:53:56.043
교내 대회의 참가 의지,

00:53:56.143 --> 00:54:00.961
참가 내용, 이런 것들을 학생부
내에서 표현할 수 있는

00:54:01.061 --> 00:54:03.842
노하우가 분명히 있습니다.

00:54:03.942 --> 00:54:05.593
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돼요.

00:54:05.693 --> 00:54:08.483
교내 대회에 참가를
많이 하셔야 되고

00:54:08.583 --> 00:54:12.681
기록을 남기셔야 되고
이 내용이 수업 시간이라든가

00:54:12.781 --> 00:54:15.701
담임 시간에 발표
같은 거를 통해서라도

00:54:15.801 --> 00:54:18.427
기재가 될 수 있도록
노력을 하셔야 됩니다.

00:54:18.527 --> 00:54:21.787

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교내
대회를 준비한 과정이

00:54:21.887 --> 00:54:26.994

학생부에 어떻게든 감시를
통해서라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.

00:54:27.094 --> 00:54:28.949

문제는 이거죠.

00:54:29.049 --> 00:54:30.563

상을 못 탔어요.

00:54:30.663 --> 00:54:33.023

너무 실망한 나머지 안 하는 거예요.

00:54:33.123 --> 00:54:38.426

아닙니다, 학종의 좋은 점은
실패라는 것도

00:54:38.526 --> 00:54:41.565

어떻게 보면 장점이
될 수 있다는 거예요.

00:54:41.665 --> 00:54:44.349

어떤 학생이 실패를 했어요.

00:54:44.449 --> 00:54:50.648

그런데 학종을 지원하는 학생답게
결과 분석을 철저하게 합니다.

00:54:50.748 --> 00:54:54.150

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구나,
이러한 점은 보완해야 돼.

00:54:54.250 --> 00:54:57.229

이러한 점을 매꾸기 위해서
새로운 활동을 하게 돼요.

00:54:57.329 --> 00:55:00.619

독서를 많이 하게 되고 동아리를
만들고 토론 활동을 하게 됩니다.

00:55:00.719 --> 00:55:05.041

그 결과, 물론 같은 대회에
참가해서 상 받을 수도 있어요.

00:55:05.141 --> 00:55:09.870

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
성공이라는 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.

00:55:09.970 --> 00:55:11.152

그러면 어때요?

00:55:11.252 --> 00:55:13.409

실패지만 오히려
이 학생은 뭐가 돼요?

00:55:13.509 --> 00:55:16.951

전화위복이 돼서 정말로 멋진
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.

00:55:17.051 --> 00:55:21.020
그래서 학종의 좋은 점이
실패가 버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.

00:55:21.120 --> 00:55:24.090
예전에는 학교에서의 실패는
그냥 실패로 끝났습니다.

00:55:24.190 --> 00:55:27.958
하지만 학종 시대에서
여러분의 수업 시간이라든가

00:55:28.058 --> 00:55:32.365
학교 활동 내에서 겪었던 실패는
정말 좋은 밑거름이 되고

00:55:32.465 --> 00:55:35.353
이게 만약에 여러분의
성장에 큰 도움이 됐으면

00:55:35.453 --> 00:55:40.068
그 실패는 그 어떤 성공보다도
좋은 스펙이 될 수 있다는 거.

00:55:40.168 --> 00:55:42.619
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

00:55:42.719 --> 00:55:47.069
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?
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해요.

00:55:47.169 --> 00:55:49.356
왜냐하면 플랜을 만들어놔야 돼요.

00:55:49.456 --> 00:55:51.438
플랜 A와 플랜 B를
만드셔야 됩니다.

00:55:51.538 --> 00:55:53.046
A라는 활동이 성공을 했어요.

00:55:53.146 --> 00:55:54.649
성공한 기폭체대로 가야겠죠.

00:55:54.749 --> 00:55:57.425
실패를 했어요, 실패한 대로
플랜을 짜셔야 돼요.

00:55:57.525 --> 00:56:01.382
그래서 체계적인 계획을 짤 필요가
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0:56:01.482 --> 00:56:03.329
교내 대회는 굉장히 많습니다.

00:56:03.429 --> 00:56:06.822
예전 일반고 같은 경우는 교내
대회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.

00:56:06.922 --> 00:56:08.979
하지만 요즘 학종 시대기 때문에,

00:56:09.079 --> 00:56:10.852
많은 일반고가 노력을
하고 있습니다.

00:56:10.952 --> 00:56:13.195
그래서 자사고만큼의
교내 대회는 아니지만

00:56:13.295 --> 00:56:16.150
자사고의 70% 정도까지 교내
대회를 만들고 있습니다.

00:56:16.250 --> 00:56:20.288
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도 50개
이상의 교내 대회가 있어요.

00:56:20.388 --> 00:56:22.774
50개 이상의 교내 대회는 됩니까?

00:56:22.874 --> 00:56:26.247
거의 한 주에 하나의
대회가 열린다는 겁니다.

00:56:26.347 --> 00:56:28.457
굉장히 많은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

00:56:28.557 --> 00:56:32.548
여기에 모두 다
참여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.

00:56:32.648 --> 00:56:35.555
그리고 모든 대회에
참여할 필요가 없어요.

00:56:35.655 --> 00:56:37.135
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.

00:56:37.235 --> 00:56:39.997
모든 교내 대회는 학기 초
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.

00:56:40.097 --> 00:56:45.732
언제, 어느 때, 이런 대회가
열릴 것이라고 게시가 돼요.

00:56:45.832 --> 00:56:49.233
그래서 여러분은 학기
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

00:56:49.333 --> 00:56:52.088
올해 어떤 대회가 있는지
보셔야 됩니다.

00:56:52.188 --> 00:56:53.827
보시고 짹 정리를 하셔야 돼요.

00:56:53.927 --> 00:56:55.403

보통 달력으로 기록이 되어있으니까

00:56:55.503 --> 00:56:57.622

보시고 선택과 집중을
하셔야 됩니다.

00:56:57.722 --> 00:57:00.313

그리고 일종의 Two Track
전략을 써야 돼요.

00:57:00.413 --> 00:57:03.368

그 교내 활동 중에서
버릴 거는 버립니다.

00:57:03.468 --> 00:57:08.249

그리고 남아 있는 대회 중에서
정말로 자기가 지원할 학과와

00:57:08.349 --> 00:57:12.582

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A급대회.

00:57:12.682 --> 00:57:17.189

학과와 밀접한 관련은 없지만
내가 평상시에 관심이 있고

00:57:17.289 --> 00:57:21.188

하게 되면 나름대로 내 능력이
올라갈 것 같은 대회.

00:57:21.288 --> 00:57:26.021

그렇게 A, B를 나눠서
일정을 짜셔야 돼요.

00:57:26.121 --> 00:57:29.585

예를 들어서 A이 대회, UCC
대회는 시간 안에 필요하니까

00:57:29.685 --> 00:57:31.952

이때부터 아이들하고
협의를 해야겠다.

00:57:32.052 --> 00:57:36.976

SA 대회, 이것도 마찬가지로
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니까

00:57:37.076 --> 00:57:39.497

이 정도 기간이 겹치지
않게 짜야겠다.

00:57:39.597 --> 00:57:43.327

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셔야
됩니다, 체계적으로 말이죠.

00:57:43.427 --> 00:57:47.294

그리고 시험보듯이 치열하게
준비를 해야 돼요.

00:57:47.394 --> 00:57:51.353

왜냐하면 교내 대회는 실적이
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.

00:57:51.453 --> 00:57:52.910
물론 결정적인 거는 아니에요.

00:57:53.010 --> 00:57:54.389
양이 아주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.

00:57:54.489 --> 00:57:56.661
하지만 실적은 있어야 돼요.

00:57:56.761 --> 00:57:59.872
그렇기 때문에 시험 공부하듯이
준비해야 되고요.

00:57:59.972 --> 00:58:04.623
특히 이렇게 치열하게
준비하는 과정 자체가

00:58:04.723 --> 00:58:06.808
여러분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요.

00:58:06.908 --> 00:58:10.394
스토리를 만들어 가는
이야기 구조이기 때문에

00:58:10.494 --> 00:58:11.781
열심히 노력하셔야 됩니다.

00:58:11.881 --> 00:58:15.990
그리고 기록하셔야 되고
실패할지라도 이런 실패 경험은

00:58:16.090 --> 00:58:19.001
또 하나의 성공을 위한
밑거름이 되기 때문에

00:58:19.101 --> 00:58:23.344
아주 치열하게 체계적으로
교내 대회를 준비하는 게

00:58:23.444 --> 00:58:26.801
정말로 학종을 위해서 여러분이
성공할 수 있는 길이라고

00:58:26.901 --> 00:58:29.112
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0:58:29.212 --> 00:58:34.899
교내 대회는 수행평가와 마찬가지로
확장성이 굉장히 커요.

00:58:34.999 --> 00:58:38.863
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교내
대회는 준비 기간이 깁니다.

00:58:38.963 --> 00:58:43.602
물론 영어 경시 대회라든가
수학 경시 대회처럼

00:58:43.702 --> 00:58:45.822
테스트 형식의 경시 대회도 있고요.

00:58:45.922 --> 00:58:49.956

그리고 UCC 대회라든가
리더십 대회, TED대회처럼

00:58:50.056 --> 00:58:52.817
준비 기간이 필요한 대회가 있어요.

00:58:52.917 --> 00:58:55.590
이런 긴 준비 기간,
아까 이야기했다시피

00:58:55.690 --> 00:58:58.044
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
여러 가지 사건이 터집니다.

00:58:58.144 --> 00:59:00.550
그래서 이러한 것들을
준비하셔야 되고요.

00:59:00.650 --> 00:59:05.723
그 활동 하나하나가 다른
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

00:59:05.823 --> 00:59:10.150
교내 대회 참가는 정말로
실보다는 득이 큰 활동입니다.

00:59:10.250 --> 00:59:14.266
그리고 요즘 활동이 많이 비슷해요.

00:59:14.366 --> 00:59:18.257
제가 이야기했었죠? 학종으로 인해서
많은 학교가 노력하고 있고,

00:59:18.357 --> 00:59:20.340
많은 친구들이 같이 노력을 해요.

00:59:20.440 --> 00:59:24.964
그래서 학종에 지원하는 학생의
스펙이라든가 활동의 질이

00:59:25.064 --> 00:59:26.544
상향평준화가 됩니다.

00:59:26.644 --> 00:59:28.431
그리고 활동이 거의
비슷해지고 있어요.

00:59:28.531 --> 00:59:30.188
활동이 비슷하다면
뭐를 해야 됩니까?

00:59:30.288 --> 00:59:32.873
바로 차별화를 하셔야 돼요.

00:59:32.973 --> 00:59:36.417
이 차별화의 밑거름, 바로 뭐니까?
확장에 있습니다.

00:59:36.517 --> 00:59:38.758
이 점 반드시

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.

00:59:38.858 --> 00:59:41.930
확장이야말로 여러분의 학생부를
남들과 차별화하게 하고

00:59:42.030 --> 00:59:47.220
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
비해서 훨씬 더 재미있는,

00:59:47.320 --> 00:59:49.697
스토리 있는 학생부가 탄생됩니다.

00:59:49.797 --> 00:59:51.083
예를 들어 볼게요.

00:59:51.183 --> 00:59:53.232
UCC 대회를 했어요.

00:59:53.332 --> 00:59:57.483
이 결과라든가 중간 과정 속에서
필요한 소재를 찾기 위해서

00:59:57.583 --> 00:59:58.810
독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

00:59:58.910 --> 01:00:03.943
그리고 여기서의 내용, 자기가
금연 관련 UCC를 만들어요.

01:00:04.043 --> 01:00:06.887
그런데 자기가 가고 싶은
학과가 화학 학과입니다.

01:00:06.987 --> 01:00:08.437
뭐를 하면 됩니까?

01:00:08.537 --> 01:00:12.329
담배에 있는 니코틴에 대한
영양 성분과 영향에 대해서

01:00:12.429 --> 01:00:14.937
탐구보고서로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.

01:00:15.037 --> 01:00:20.032
아니면 화학 시간의 수행평가에서

01:00:20.132 --> 01:00:22.997
화학 물질과 관련된 거를
발표하는 거예요.

01:00:23.097 --> 01:00:25.868
그러면 담배 속에 있는
니코틴에 대한 성분을 조사해서

01:00:25.968 --> 01:00:26.884
발표하면 되겠죠.

01:00:26.984 --> 01:00:29.223
그리고 소논문 같은
경우도 할 수 있겠죠.

01:00:29.323 --> 01:00:32.723

그래서 하나의 교내 대회이지만
준비 기간이 길고

01:00:32.823 --> 01:00:35.100

이 속에서 많은 사건이
터지기 때문에,

01:00:35.200 --> 01:00:38.770

정말로 많은 활동과 연계될 수
있고 확장될 수 있습니다.

01:00:38.870 --> 01:00:42.180

그런데 이거를 안 하면 이거를
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돼요.

01:00:42.280 --> 01:00:45.491

우리는 보통 필요의 존재라고 하죠.

01:00:45.591 --> 01:00:48.356

뭔가 필요해야지만 움직이게 됩니다.

01:00:48.456 --> 01:00:50.445

필요하지 않으면
움직이지 않게 돼요.

01:00:50.545 --> 01:00:53.578

그래서 이 대회에서
물론 수상하면 좋지만,

01:00:53.678 --> 01:00:57.922

다른 활동들을 하기 위한
기폭제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

01:00:58.022 --> 01:01:00.190

수상이 목적이 아니어도 돼요.

01:01:00.290 --> 01:01:02.549

다른 활동을 위한
밑거름으로 삼으셔도

01:01:02.649 --> 01:01:05.881

굉장히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
말씀드리고 싶습니다.

01:01:05.981 --> 01:01:10.900

교과는 교내 활동과
떨어져서는 안 돼요.

01:01:11.000 --> 01:01:16.156

교과에 있는 모든 활동, 특히
수업, 교과세특, 교내 대회.

01:01:16.256 --> 01:01:20.816

모두 뭐가 연결됩니까?
교내 활동과 연결이 돼야 돼요.

01:01:20.916 --> 01:01:26.221

되지 않으면 학생부 자체가
풍요롭게 되지 않습니다.

01:01:26.321 --> 01:01:27.908
스토리 라인이 없게 돼요.

01:01:28.008 --> 01:01:31.524
단절된 활동은 학종에서는
지양해야 됩니다.

01:01:31.624 --> 01:01:35.525
여러분이 지향해야 되는
활동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

01:01:35.625 --> 01:01:38.584
하나의 활동으로 끝나는 게
아니라 확장되고,

01:01:38.684 --> 01:01:41.477
확장을 통해서 여러분의
스토리 라인과

01:01:41.577 --> 01:01:45.682
여러분의 진정성과 꿈을
드러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.

01:01:45.782 --> 01:01:51.107
교과, 학종 시대에
있어서 오해해서는 안 돼요.

01:01:51.207 --> 01:01:55.062
학종 시대지만 활동 위주가
아니라 교과 위주입니다.

01:01:55.162 --> 01:01:57.329
그런데 교과라는 게 내신
위주는 아니에요.

01:01:57.429 --> 01:02:00.909
내신도 분명히 교과 내에
포함되어있는 요소입니다.

01:02:01.009 --> 01:02:03.994
내신도 중요하고 교과목의
선택도 중요하고

01:02:04.094 --> 01:02:07.774
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
기록한 교과세특도 중요합니다.

01:02:07.874 --> 01:02:11.873
그리고 교내 대회,
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?

01:02:11.973 --> 01:02:17.595
바로 학생부를 꾸미게 될 교과
항목의 품목입니다.

01:02:17.695 --> 01:02:22.981
학종의 베이스는 교과예요,
교과 중심입니다.

01:02:23.081 --> 01:02:25.037

그런데 교과는 내신 성적이 아니라

01:02:25.137 --> 01:02:29.292

내신 성적, 교과세특, 수업에
이루어지는 모든 활동, 교내 활동.

01:02:29.392 --> 01:02:31.616

이거를 다 통틀어서 말하는 겁니다.

01:02:31.716 --> 01:02:34.294

교과 중심의 학종,
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
01:02:34.394 --> 01:02:38.364

다음 4강에서는 교내 활동의
꽃이라고 할 수 있는

01:02:38.464 --> 01:02:44.492

창의적 체험 활동, 자율 활동,
동아리 활동, 봉사 활동, 진로 활동.

01:02:44.592 --> 01:02:46.035

보통 자동봉진이라고 하죠?

01:02:46.135 --> 01:02:50.100

자동봉진에 대해서 다뤄보는
시간 갖겠습니다.